

미 요한 계시록의 총 주제와 성경의 구조 파악하기

계1:1-3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1년에 걸쳐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강해를 시작하려 한다. 1-22장을 자세하게 공부하여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왜? 세상이 급변하며 종말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 바쁘게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UN, 세계 경제 포럼, 10-30년 계획을 짜고 지구/인간 개조를 이루려고 한다.

아마도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 계획이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함

그리고는 이런 계획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한다. (*)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레이트 리셋은 곧 사람의 손으로 신세계질서, 유토피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유일하게 절대 진리를 말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인류의 마지막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이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

일단 결론: 그레이트 리셋이 있다. 3번, 노아의 대홍수, 7년 환난기(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7년 환난기, 적그리스도, 짐승의 시대

앞으로 20-30년 동안에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재편되는 때가 있다. 절정기가 바로 7년 환난기

그런데 이 그레이트 리셋의 주인공은 UN이나 세계정부주의자들이나 이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누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1).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7년 환난기 이후에 평화의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모든 것이 리셋된다. (*) 타임라인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

이유: 하나님의 인간 역사 경륜을 연구하여 평안을 얻으려고, 무슨 책이든 결론을 알면 기쁘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지구와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난 60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아니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 >, 여러 책들 소개

라킨, 럭크맨, 위어스비, 모리스, 제임스 닉스, 가이슬러, 존 맥아다, 밥존스, 델러스, 남침례대학, 펜사콜라, 무디, 바이올라, 휘튼 등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개인과 신학교에서 성경 그대로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글, 설교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먼저 큰 그림을 보고 자세한 나무를 설명할 것이다. 그냥 마음을 열고 행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전하는 것들이 성경과 비교하여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취할 것을 취하기 바란다.

눅24장, 엠마오 마을 두 제자, 그 이후 11제자, 구약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 예수님의 평가(눅24:25), 설명(27), 이해력을 넓혀 주심(45)

1517년 마르틴 루터, 요한 갈빈, 오웬, 에드워즈, 요한 웨슬레 등 계시록에 관한 한 눈먼 소경들이다. 그들에게는 때가 열리지 않았다. 짐승의 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9:15) 등 어떻게 이해하는가?

비행기도 모르는데, 더욱이 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

다니엘서의 말씀(12:4),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식의 증가, 교통 수단의 발달, 심지어 자동차 비행기, 드론 등, 지식의 집적, 4차 산업혁명, 초고속 인터넷, 인공 지능,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시대, 동성애의 창궐

이런 것들은 심지어 1980년대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세상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였다.

이번에 코로나 19 백신, 방역 패스 사태,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UN에서는 UN 어젠다 2030을 세우고 그레이트 리셋을 하려고 한다.

특별히 코로나 19를 통해 그레이트 리셋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알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평안하다. 그것이 이번 공부의 목적이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제임스 닉스).

우리는 오늘부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예언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계시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책이다. 왜,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의 종말을 다루고 있으므로. 소설책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성경으로 해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책이다. 그것은 항상 진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진리일 것이다. 신구약 성경은 BC 1500-AD95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이다. 이 세상의 왕국들과 통치자들은 왔다가 사라진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사라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던 것들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항상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읽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 기록된 부분도 문자적으로 기록된 다른 부분을 통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특히 예언을 믿는 마음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바른 접근이다.

1.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이다(1). 하나님인신 예수님의 계시 즉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계19:10,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함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할 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구약 시대 대언자들, 천사들, 사도들, 지금의 목사들, 다 대언한다.

무엇을, 예수님의 증언(즉 말씀)을, 한 성령 안에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여러 가지:

하늘나라, 구원, 사악한 자들의 멸망, 계시록의 음녀 바빌론, 다 맞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증언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는 계시록에 관해 공부하면서 예언(대언) 따로, 예수님 따로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예언(대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달려 있다. 유엔이나 세계경제포럼이나 미국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없다. 우리의 미래는 왕들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주제는 아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구원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다. 유대인과 교회는 성경의 주요 수신인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였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완전해진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야 완전해진다. 지구 전체는 인간이 아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완전해진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생과 국가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사9:6)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해 다루고 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 이것은 일시적인 일에 관한 설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지금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 매일 죽지는 않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6) 이것은 앞의 두 가지 진실과 달리 영원한 일에 관한 설명이다. 정권이 주님의 어깨에 놓이면 그 정권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9:7)

성경은 미래에 관해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 아담의 타락과 영원 사이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누구든, 일어나는 사건이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꾸지 못한다. FAC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얼마나 타락하든, 느부갓네살이나 카이사르 같은 황제나 교황이나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건 성경의 이러한 예언을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러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언에 관해 공부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

미래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온 세상에는 7년 환난기가 임할 것이고 큰 배교가 올 것이며 거짓 대언자들과 짐승과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이다.

FACT: 하지만 결국 성경이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아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관한 예언을 공부할 수 있다.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의 미래도 확실하다. 이 세상은 멸망하여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지옥이나 불 호수나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질 것이다.

단2:37, 39, 40, 42를 보자.

우리는 이 시간에 형상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결론만 보려고 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상의 왕국들과 그 왕국을 통치하는 왕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44절)

우리는 결과를 모두 알고 관람하는 관객과 같다.

우리는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반대와 원수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만일 성경이 명확하게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예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과 불확실성과 혼란 가운데 이 주제를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피하는가?”(시 2:1) 이것은 좋은 질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질문은 기록했지만 답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교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늘나라도 없고 용서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없다면 죄에 대한 심판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와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위로와 확신과 교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일뿐 아니라 자신의 혼을 자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2-3절)

인간이 연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내던지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4-12절,

3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가의 의회와 정상회담과 유엔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예언을 공부할 수 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승리하는 팀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교회를 먼저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후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7년 환난기를 보내시고 나서 아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 년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그레이트 리셋)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그레이트 리셋).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창조한 창조물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교제를 나누실 것이다. 그때에는 이전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고(1)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다(2).

이것은 수정 구슬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손금을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여준다. 코란이나 몰몬경에는 미래에 관한 예언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않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라.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보기 위해 성경 전체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 쌓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야 한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해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성경의 예언에 관해 공부하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결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계시록 공부를 통해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 지고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미군 요한 계시록, 휴거와 재림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부탁과 경고의 말씀
약3:13-18

공지한 대로 주일 오전 요한계시록, 주일 오후 성경 문제, 금요일에는 그레이트 리셋, 메타버스, 세상 변화 등 설명, 이유: 세상이 급속히 성경이 예고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므로 목사로서 알리고 경고해야 한다. 13년 전 계시록 강해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기술, 교통, 통신, 문화
지난주, <요한 계시록의 총 주제와 성경의 구조 파악하기>, 계시록 1-22장을 자세하게 공부하여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심적/영적인 스트레스

핵심: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식과 지혜의 문제(약3:13)

저와 제 아내의 차이: 나는 지식 추구(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데 여러 일에서 실수한다), 내 아내는 지혜 추구(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간관계, 믿음 문제 등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때로는 큰 갈등을 일으킨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목회 하면서 이런 일로 인해 목회를 중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 19 입원 이후, 내 태도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설교의 방향 등도 다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이 아내에게는 큰 불안 초래

좋지 못한 일을 하는 몇몇 목사 이름 언급 등, 혹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등의 불안 부산 한마음침례교회 김문수 형제 목사 임명 취소, 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영상 비공개 가처분 신청 내 아내에게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노년에 조용히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느냐? 수지 강OO 목사 사건 등 왜 말하느냐? 우리만 잘하면 되지?

내 생각: 나도 자제하기 원한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그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해 온 일이기

좋은 것, 부드러운 것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눅6:26).

그렇다고 말보회처럼 안하무인격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30년 동안 하도 안하무인격으로 노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내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다. 나에 대해.

요즘 나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오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때가 급한데 목사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사랑발림, 감성팔이 설교, 신사도(은사), 구원 상실, 환난 통과, 성경과 영감과 완전성 부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

그런데 아내는 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 내가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하지 못하므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 심사숙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갈등은 나와 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 다수에게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

나만 다 안다, 나만 옳다. 다른 사람들 폄하, 집과 직장 등에서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는가?

다시 강조한다: 나는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적절한 때에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여 가정과 교회와 주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미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나왔다. < >

앞으로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세상 징조를 보고, 개역성경의 문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등을 눈으로 볼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낄 것이다(나도 그랬다).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눅24:32,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성경 연구를 통해 분명히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냉랭하게 될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개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지적하는 마음, 한 마디로 나만 옳다는 마음

말보회, 개역성경은 사탄성경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신약교회이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지식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

즉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오늘은 경고와 함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 한다.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 제임스 닉스의 야고보서 강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13),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 지혜와 지식 둘 다 필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그 힘이 지혜롭게 사용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인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삶에서 지혜롭게 사용한다.

나의 경험

지식은 사실을 정확히 하는 것, 지혜는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지식: 성경의 구조, 계시록, 세상 징조, 성경 본문,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 중요하다.

미국에 가서 25살에 처음으로 클라렌스 라킨의 성경 바로 보기 책을 접함(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 책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전까지 감리교인,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성경의 구조, 조직신학, 계시록, 창조와 진화 등 잘 모름, 그저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정도의 지식

그러다가 침례교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함, 라킨 기계공학도, 성경의 중요 주제들을 읽고 파악한 뒤 제도를 통해 그림으로 묘사함(전문 제도 기사), 공학적인 마인드에 딱 다가오는 책(논리적,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주제들 일목요연하게 설명함

위키백과(*) 1850-1924년, 라킨은 32살에 회심함, 성공회, 그 뒤 침례가 맞다고 판단하여 침례성도, 침례교 목사

당시 미국, 근본주의, 전천년주의, 환난 전 휴거,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함

1918년에 Dispensational truth, 3년에 걸쳐 완성, 300쪽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킴, 재창조 부분을 빼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함

가장 큰 특징: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함

다니엘서 세상 왕국(*)

예언의 산봉우리(*), 이런 차트를 총 200여 장 그리고 설명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음, 유대인들 전 세상으로 흩어져서 어려움 겪음

라킨의 주장: 유대인들이 반드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므로 이런 주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방함

반면에 근본주의자들 바이블 빌리버들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음

결국 그가 죽은 뒤 24년이 지나서 1948년에 유대인들 그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무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의 책들을 통해 확고하게 성경을 믿는 믿음, 당시는 100% 킹제임스 성경, 그 책들도 당연히 KJB 1992년 귀국, 곧바로 그의 책을 냄, <다시 보는 성경>, 그 뒤 <성경 바로 보기>

모두 컬러 차트로 바꿈, 스티디 성경, 에스라 성경 사전 지도
그 뒤 러크맨, 위어스비, 맥아더, 파이퍼, 제임스 닉스, 웨이트, 로이드 존스 등 세계적인 목사, 성경 학자들 책 참고, 성경 번역, 유명하다는 주석들 읽음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기에 내 처는 늘 걱정하고 있다.
나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오늘 14-18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14-16)

본문에 의하면 자기 지식을 세상적이고 관능적이며 마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나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잘 아는 대로 킹제임스성경 진영은 지식은 넘쳐나지만 실행은 빈약하다. 오늘날 킹제임스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인생을 보면 열매가 빈약하고 초라한 경우가 허다하다. 안타깝게도 킹제임스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14절)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올바른 지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지만 지식이 시기와 다툼과 결합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을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이기적인 동기로 지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 결과 분열과 다툼을 포함한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는 어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게 서고 다른 사람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는 동기로 일했다.

진정한 사역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다. 세상이나 마귀나 인간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역이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 낸다. 성경 말씀은 단순하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우리의 사역(일)의 결과는 다툼과 논쟁과 분열일 것이다.

마귀의 지혜(15)

야고보서 3장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서로 대응하는 7가지 특징을 보여 준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15-16절)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에 관해 말씀한다. 세상(마귀)의 지혜는 다음과 같다.

- (1) 땅에 속했다. 이것은 세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자기 자랑
- (2) 관능적이다. 이것은 느낌을 따라 산다는 말이다. 자기 기쁨
- (3) 마귀적이다. 마귀를 기쁘게 한다. 교만하다.
- (4) 시기를 일으킨다.
- (5) 다툼을 일으킨다.

- (6) 혼란을 일으킨다.
- (7) 그 결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도 자신의 방법대로 그 지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17-18)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17)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순수하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 정반대를 이룬다. 순수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 (2) 화평을 이루어낸다. 자신의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하되 끝이 결과가 화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부드럽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과 대응하는 특징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는 선한 것을 파괴하는 자이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부드럽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본다. 하나님의 지혜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며 아내를 사랑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부드럽다고 말한다.
- (4) 간청을 잘 들어준다.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잘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시기를 일으키는 것과 대응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외적 증거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이 가장 잘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청을 잘 들어주고 도와준다.
- (5)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킹제임스성경 진영은 역사상 그 어떤 진영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장 많이 다투는 그룹이다.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난다. 바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면 다툼이 아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 (6) 차별이 없다. 이것과 대응하는 세상의 지혜는 혼란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혼란이 사라질 것이다.
- (7) 위선이 없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면 위선을 행한 것이며 그 결과는 선이 아닌 악이다.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그 결과는 모든 악한 일로 드러날 것이다.

결론

아는 것이 힘이다.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한다. 계시록, 재림과 휴거

그리고 지혜롭게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야고보서 3장: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옳은 것을 알리는 일, 악한 것을 꾸짖는 일도 필요하면 하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계시록 공부 등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㉓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계1:1-3

우리는 배움을 위해 책을 읽는다. 책 속에 길(지혜)이 있다. 유익이 있다.

올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려 한다. 그러면 계시록 공부에도 유익이 있고 길이 있다.

오늘 < >, 어떤 책, 연구의 가치,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A. 요한 계시록 요약(킹제임스 흠정역 계시록 소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6년경, 성격: 예언

수신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아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 주었다 (1-2).

주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요5:22, 27)

목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과 인류와 사탄의 최종 종착지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상태를 보여 주는 것, Eschatology

내용: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미지근한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로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 이 책은 또한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의 성취를 보여 주며 특히 창세기와 함께 완벽하게 진리의 사이클을 구성한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면서(1:19) 그리스도의 환상(1장), 교회의 심판(2-3장),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환난기(4-19장), 천년 왕국(20:1-6),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20:7-15),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21-22장)을 차례대로 기록한다.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로 구성되어 있다. (*) 차트 설명

핵심 장: 19장(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핵심 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1:19)

핵심 단어: 이기다(2:7, 11, 17, 26; 3:5, 12, 21),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다(요일5:5)

핵심 문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2:7),

B. 계시록 연구의 가치

1.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한 복이 임한다(계1:3; 22:7).
2.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끝을 알므로 행복하고 평안하다.
3. 성경의 예언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다(재림의 상세 사항, 19-22장).
4. 성경의 처음과 나중을 앞으로 진리의 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다음 시간 자세히
5.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알 수 있다: 구약성경 39권 중 26권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C.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1. 성경의 66권 책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책이다. 심지어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 안식교, 신천지 등, "어렵다, 이단이 되거나 이단에 빠진다."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가장 평이한 책 중 하나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기가 어렵다"
2. 종말 완성: 사탄, 교회, 유대인, 이방인, 민족들, 바빌론(천주교 체제), 땅과 우주의 종말, Eschatology
3. 계시록은 기록된 때부터 시종일관 신학적 싸움의 근원이 되었다: 전천년설(주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을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
4. 계시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20:1-6에서 나온다.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시적인 왕국을 세운다는 것에 반대함, 평화의 왕국 즉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다. 천년왕국, 6번이나 나온다.

세계정부주의자들, 빌 게이트 등 후천년설(*)

D.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논쟁이 많은 책이다.

(*)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세상 Christendom: 카톨릭(행위 구원, 마리아 숭배, 연옥, 제사장 등 비성경적인 교리들, 행위 구원 혹은 믿음 + 행위 구원), 프로테스탄트, 침례교(침례, 세례, 칼빈주의, 알미니안 주의. 다양하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엡2:8-10).

Christianity: 프로테스탄트, 침례교

프로테스탄트와 침례교(Bible believer)의 가장 큰 차이

핵심: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천주교, 프로테스탄트(루터, 칼빈, 에드워즈, 웨슬리 등)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이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교회가 차지한다(복을 받는다. 평안하다. 보호를 받는다 등).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런 약속들 가운데 물리적인 것들,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짐 등은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사야서 9, 11, 눅1:31-33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함

실제 왕국은 없고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

이 이론은 보통 무천년설(주의)이라고 말한다. (*) 창시자는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천주교,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은 무천년설, 실제 이스라엘 부인

그러나 침례교회의 다수의 바비블 빌리버들: 아니다. 문자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결국 올리브 산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를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신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개의 신학 사조가 프로테스탄트, 침례교를 지배하고 있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로교 감리교 중심, 당연히 무천년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칼빈주의, 언약 신학

미국: 당연히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다수, 이렇게 믿는 신학을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의 가장 유명하다는 미국의 신학교들, 다 이런 입장 교수, 델러스, 밥존스, 남침례, 무디, 바이블라, 리버티 펜사콜라 등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극렬하게 다룬다.

한국,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펜사콜라, 무천년주의 칼빈주의를 학교로 들여오면 안 된다는 규정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다. 왜, 1948년 5월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계시록 11장에 있는 환난기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 이후 약 1600년 동안 이어진 무천년주의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문자 그대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한다.

이들의 주장: 휴거 없다. 천년왕국 없다.

이 가운데 휴거가 있다고 믿는 자들도 있다(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다만 7년 환난기를 목숨을 내걸고 통과해야 한다. 환난 통과설,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마24:13).

E. 네 가지 해석 방법

1. 과거적 해석 방법: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계시록이 기록된 AD 96년 전에 다 일어난 것들이다.

카톨릭, 대다수 장로교, 그래서 기록 연대와 저자를 달리 보려 한다.

저자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요한, 기록 연대도 AD 70년 이전의 네로의 박해 시대

그래서 계시록 6-19장의 모든 심판은 이미 다 끝났다. 네로가 적그리스도이다.

재림은 곧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이쯤 되면 계시록을 수백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읽으려고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개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러니 계시록을 가르쳐주겠다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등장한다.

2. 역사적 해석 방법: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즉 계시록의 환상들을 저작 당시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르는 전 역사의 축소(縮圖)로 보는 해석법이다. 주장 근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시까지의 연대순서대로 기록되었으므로, 그 사건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도 문제없이 알아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6장의 사건들은 계시록에서 4분의 3의 위치에 있으니 그 시기를 1517년 종교개혁시대로 잡는다면 세상의 종말은 1987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 해석법은 계시록을 마치 계산자(slide rule)나 인류역사의 시간표처럼 취급하여,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시대와 결부시키므로 이 점을 배격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stchopeter/222319440287>

다섯째 봉인: 순교자들, AD 300년경의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핍박

다섯째 나팔: 메뚜기 심판, 마호메트 군대의 침략 등, 프로테스탄트 일부

3. 영적 해석 방법: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므로 다 상징이나 은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무천년주의). 천주교, 프로테스탄트 일부
4. 미래적 해석 방법: 계시록 4장 이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한 해석 방법이다, 11장의 환난기 성전, 13장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17-18장의 바빌론 몰락,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 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F. 연구에서 주의할 점

1.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2. 사건의 배열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늘에서 일어나는지, 땅에서 일어나는지
예: 4-5장은 하늘에서, 6장은 땅에서
3. 이 책의 사건 중 4-19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기간이 여러 번 반복된다.

G. 결론

1-3절을 읽어 보자. 예수님의 계시(1), 예수님의 증언(2, 5절 참조),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그래서 3절

휴거,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등을 기다리면 벵후3:12-14대로 해야 한다.

마 요한 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묵시)라는 말의 의미

계1:1-3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같은 책을 읽어도 보는 관점, 해석의 방법에 따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성경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읽고 계시록의 경우 과거주의 해석을 하지 않고 미래주의 해석을 한다. 즉 계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 성경 신자들은 천주교,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따르지 않는다.

오늘 <요한 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라는 말의 의미>, 창세기와의 대비, 가장 중요한 구절, 전체 개요, 계시와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 설명

창세기와의 대비

성경 66권, 39권, 27권, 첫 책 창세기, 마지막 책 계시록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의 관점: 세상 창조 전 마귀의 타락,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 줄 필요

그 일을 위해 우주와 인간을 만들, 마귀의 개입, 인류 역사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 하나님 대적함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서 높, 결국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불 호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시간: 1000년이 하루, 하루가 1000년, 6일+1일, 약 7일 동안, 하나의 점도 못됨

인간의 관점: 마귀에 의해 타락함, 죄와 사망, 영원히 사는 것, 인류 역사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 성경은 마귀가 망친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계시록은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즉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잘 보여 주고 있다(창3:15).

	창세기	계시록
1. 낙원	잃어버림(에덴동산)	회복함(천년왕국)
2. 생명나무	접근 금지(3:22-24)	먹음(22:2)
3. 인간의 반역	시작(3-4장)	종결
4. 살인 등의 죄악	시작	종결(21:27)
5. 죽음(사망)	시작(4:8)	종결(21:4)
6. 저주	시작(3:15-18)	종결(22:3)
7. 마귀	인간의 유혹자(3:1-18)	최후를 맞음(20:10)
8. 바빌론(바벨)	시작(11)	최후 멸망(17-18)
9. 하나님의 말씀	변개(3:1-5)	변개의 저주(22:19)

그리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일은 영원 무궁히 지속된다.

성경의 중간 책, 이사야서, 66장, 38장, 27장

시작 하늘들, 끝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중요한 구절

계시록 1장 19절 (*), (*), (*)

계시록의 전체 개요

I. 서론(1:1-8)

II. 네가 본 것들(1:9-20)

환상을 받을 때의 상황, 내용

III. 지금 있는 것들(2:1-3:22)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IV. 이후에 있을 것들(4:1-22:5)

A. 환난기(4:1-19:21), 4-19장

1. 하늘의 왕좌(4장)
2. 하늘의 책과 그것의 일곱 봉인들(5장)
3. 일곱 봉인 심판(6:1-17)
4. 환난기에서 구속받은 자들(7:1-17)
144,000명의 유대인(7:1-8), 수많은 이방인(7:9-17)
5. 일곱 나팔 심판(8:1-9:21)
6. 하늘에서 오는 천사와 작은 책(10:1-11)
7. 두 증인(11:1-19), 환난기 성전
8. 하늘에서의 전쟁(12:1-17), 미가엘과 용
9.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적그리스도)과 그의 거짓 대언자(13:1-18)
10.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줌
144,000명에 대하여
영존하는 복음에 대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땅의 수확에 대하여
11. 일곱 급병 심판(15-16장)
12. 종교적 바빌론의 심판(17장)
13. 상업적 바빌론의 심판(18장)
15.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19장)

B. 천년왕국(2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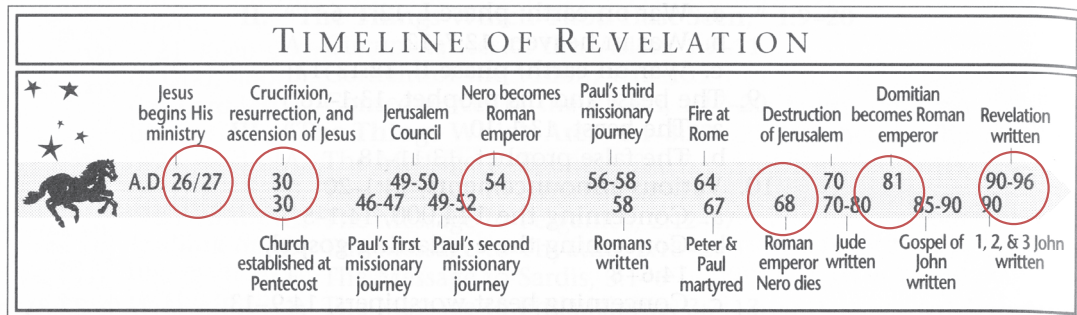
C.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상태(21:1-22:5)

V. 결론(22:6-21)

계시록과 초대 교회 시대 타임라인

과거주의자들, 계시록은 AD 70년 전 기록됨, AD 70년 예루살렘 파멸이 재림이다. 네로가 적그리스도이다 등 주장, 이스라엘 대체 신학, 영해

(*) 초대 교회 타임 라인



기록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서 갈릴리의 벳새다 출신이었다.

위키 백과 AD6-100년, 그는 요한복음과 계시록 그리고 세 서신서를 기록하였다.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으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다(막1:20; 15:40; 요

18:15; 19:27). 그는 유순해 보이지만 확고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그분과 함께하였다(요19:35).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일찍 갔으며 그분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행4:13). 그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고 야망도 있었으므로 그분의 오른쪽에 앉게 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였다(마20:20-24). 마지막 만찬에서 그는 주님 옆에 누웠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하셨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또 겐세마네에서의 고통을 보았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곳 교회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갈 2:9). 주후 65년경에 그는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며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후 95년경에 그는 밧모 섬으로 유배되어 갔고 거기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으며 그 뒤 에베소로 돌아와 아주 늙도록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하였다(요한복음). 요한 1,2,3서

계시와 예언

계1:1 계시, (*) Apokalypsis(아포칼립시스): 신비를 밝혀내다(눅2:32; 갈1:12; 살후1:7), '휘장을 찢히다', 스트롱 번호 602(신약성경에 18회)

목적: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자신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 주는 일.

'목적'을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 '비밀을 폭로하다'는 뜻을 지닌 명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춰진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말은 '계시'(啓示)와 같을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계시'란 말이 넓은 의미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면, '목적'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상 끝 날의 일, 곧 종말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즉, 목적은 계시의 일부로서 대개 세상 종말, 특히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일종의 문학적 술어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1:). (*)

..관한 계시: 요한이 주체, ..의 계시: 예수님이 주체

계시록(1:1)

예수님께서 친히 승인하신 유일한 책(계22:16)

계시록은 예언의 책: 이 대언(prophecy)의 말씀들(1:3; 22:7, 10, 18, 19), 대언 중 예언 대언,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대언자가 기록한 것, 대언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이사야서 이후 말라기까지의 대언서들에는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22장 중 첫 3장도 예언이 아니라 대언임

특히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예언 특히 후대의 대언자들인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담은 책이다(1:1).

마지막 대언(예언)의 책, 더 이상 예언은 없다(계22:18-19).

자신의 천사를 통해(1): 계22:8-9

천사(*): 임무를 수행하는 자. 스트롱 번호 32, 앙겔로스, 영어 angel은 음역, 주로 angel, messenger

이것은 히브리말이나 그리스말 모두 일차적으로 사자(使者) 즉 임무 수행자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다(마11:10; 눅7:24). 이 말은 종종 보통의 사자에게 적용되었고(눅1:14; 삼상 11:3; 눅9:52), 대언자에게(사42:19; 학1:13), 제사장에게(전5:6; 말2:7)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게도 적용되었다(시78:49; 104:4; 고후12:7).

그리스어 사전 용례 (*)

(*) 한편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고(말3:1) 그분의 복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감독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계2:1, 8, 12).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 서 있는 자들(즉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신다(마1:20; 22:3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이나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결론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드러내어 보여 주신다. 계시

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보여 주는 계시

계시록의 증인,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 내 책이다.

주신 목적(1:3):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

환난 전 휴거, 들떠서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정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22:20-21

5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계1:1-3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의 전체 개요와 계시라는 말의 의미>, 창세기와 계시록의 대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1:19), 전체 개요, 계시와 예언, 천사라는 말의 의미 설명, 기초를 모두 놓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강해

오늘 <5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1-6절 강해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소유자, 발원자, 2절에 있듯이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여 증언함 계시를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 주다(signified) sign, 스톱 싸인, 접근금지 싸인

즉 표적들 혹은 상징들을 사용하여 계시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 주다.

계시록은 성경에서 상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책

상징들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풀면 이단적인 해석이 나오기 쉽다.

상징들을 사용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조, 계시록의 구조,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 등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목사가 몇 주에 걸쳐서 기초를 놓고 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이다. 엡4:12, 성도들의 완전을 위해

성도들은 행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탐구해야 한다.

성경으로 풀려면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책과 비교해서 풀어야 한다.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 다니엘서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상징들이 나온다.

계13:1, 17:3의 짐승 열 뿔, 단7:8의 넷째 짐승 열 뿔

계12:14,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반 이레, 1260일, 42달, 단7:25, 12:7

그래서 다니엘서와 함께 계시록을 풀지 않으면 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렵다(어쩌면 불가능).

다니엘의 예언은 끝이 오는 때까지 봉인됨(단12:4, 9), 봉인된 책

아무도 못 본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간직된 책(단12:1)

다니엘서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

또한 그 안의 뜻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마24:15).

즉 단2, 7-11장의 유대인 관련 계시들은 마지막 때에 풀린다.

계시록은 유대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책, 계시록 연구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상징들, 등잔대, 성막, 언약 궤, 나팔과 재앙들, 7장의 144,000명의 유대인들

이유: 마23:37-39, 재림 전에 유대인들을 다루는 때가 있어야 한다. 다니엘의 70이레의 마지막 이레 7년 환난기, 렘30:7의 야곱의 고난의 때, 단12:1(마24:21)

반면에 계시록은 봉인되지 않음(계22:10). 즉 유대인들의 7년 환난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남

특히 계시록은 마지막 대언이므로 교회,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고전10:32)에 대한 모든 결론을 줄 것이다. 초반부: 교회, 중반부 이후: 이스라엘과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

마24장 1-3절, 예수님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24장 유대인들, 마25장 예수님 재림, 양과 염소의 심판 이방인들 심판

이를 통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계21장, 1000년 왕국 이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묘사에서도 이 세 부류가 등장한다.

열두 사도로 나타나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 안에(21:14), 열두 지파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열두 문 안에(21:12), 구원받은 민족들은 그것의 거리들에 나타난다(21:24).

2절

계1:2 요한은 기록자이다(1:1; 22:8)

사도 요한의 다른 책들과는 문체가 매우 다르다. 환상 계시를 보는 대로 기술함.

영어에는 vision이라는 말이 있다. (단수 79, 복수 24, 총 104회), 이 말은 거의 대부분 보여주는 계시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증언,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같은 말, 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신실한 증인으로 증언해 주신 것

그리스도의 증언은 대언의 영(계19:10)

1.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준다, 2. 미래를 알려준다(사41:23-26).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대언(예언)이 있기 때문이다(벧후1:20-21).

3절

계1:3 이 대언의 말씀들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다 깨닫지 못해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read+hear+keep

많이 읽어야 한다, 올바른 강해를 들어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 깨닫게 된다. 바르게 기록하게 살아야 한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계시록에는 마귀의 꾀망이 있으므로 마귀는 사람이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한다.

또 창세기를 읽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1-11장, 창3:15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시간표(히1:1-2), 2000년, 이틀, 예수님 초림 이후는 마지막 때이다.

결론

왜 계시록을 공부하는가?

계1:3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 깨닫지 못해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read+hear+keep

많이 읽어야 한다, 올바른 강해를 들어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 깨닫게 된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계시록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을 밝히 앞으로써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이겨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마 요한 계시록의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계1:4-8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오늘 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 < >,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 하러 다시 오시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재림의 두 단계 등

3절: 때가 가깝다. 때 크로노스(시계의 시간)와 카이로스(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철)

롬13:12,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4절

여기의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한다. 소아시아에서도 서쪽 끝부분, 지금의 터키 지도(*)

7교회 명단 11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

당시 그 지역에는 7교회만 있지 않았다.

골로새(골1:2), 히에라폴리스(골4:13), 드로아(행20:6-7)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들은 그 당시 지역 교회들이고 동시에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어떻게 아는가?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

일곱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등잔대, 일곱 재앙 등 54회).

일곱은 완전한 수: 대표적인 지역 교회 7개를 택하여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 준다.

우리 교회도 이 일곱 교회 중 하나에 가깝다. 2-3장을 공부하면서 비교해 볼 것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여호와, 출3:14)

일곱 영(사11:1-2), 어려운 구절, 매튜 헨리, 성령님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다. 일곱은 완전한 수,

완전하신 성령님 표현, 그분의 일곱 가지 특성 혹은 사역, 계3:1; 4:5; 5:6의 일곱 영도 역시 완전함을 강조함

5절

예수님 자신이 신실한 증인이시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골1:18; 행13:32-33; 롬1:4). 죽었다가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구약 성경 여러 사람들 부활,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여러 사람 살림

여기는 firstborn이 아니라 first begotten, 그리스어는 같은 말, 거의 같은 말

이런 독특한 단어: 성경의 용례를 잘 보아야 한다.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firstborn, 총 117회(구약110, 신약 7), 대개는 장자, 큰 아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자

그런데 다른 용례가 있다. 이 경우 시간 순을 말하지 않고 월등함을 말한다.

1. 주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출4:22).

2.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렘31:19)

3.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시89:27)

나의 처음 난 자: 하나님이 장자로 삼은 월등한 분, 이 경우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골1:15)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 등

이 경우는 16절이 처음 난 자의 의미를 말해 준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이 될 수 없다. 창조물 중에서 처음 창조된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아리우스파의 주장과 같게 된다.

처음 나게 하신 분, firstborn, bear 낳는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혹은 장자는 집안을 다스린다.

소유한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분, 소유하는 분,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 뛰어나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 진짜 왕국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과거: 죽임 당한 대언자(특히 공생애 기간), 현재: 제사장, 미래: 왕(물리적)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시다(영적인 왕), 여기서는 물리적인 실제 왕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구분해야 한다(딤후2:15).

천년왕국의 통치자

계시록의 왕국은 문자적, 가시적,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

첫째 아담이 망쳐 놓은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눅1:30-33; 마25:31-46).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마19:27-29). 28절 주목

계시록 19장의 올리브산 재림 이후에 실제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은혜와 화평, 그리스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침례의 물이 아니라 피로 씻으셨다(벧전1:18-19). 행20:28

(사1:18),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4-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함, 아버지(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아들

6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심

우리는 지금 왕가의 제사장은 지금(벧전2:9), 왕은 나중에(계5:9-10)

이것은 나중에 21-22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임

7절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그분을 찌른 자(슌12:10)

올리브 산으로(슌14:4)

이것은 휴거를 가리키지 않는다(고전15:50-53). 구름과 함께 오신다(행1:9). 성경에서 구름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구름 기둥, 시내 산의 구름 등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 슌9:1; 마24:30; 26:6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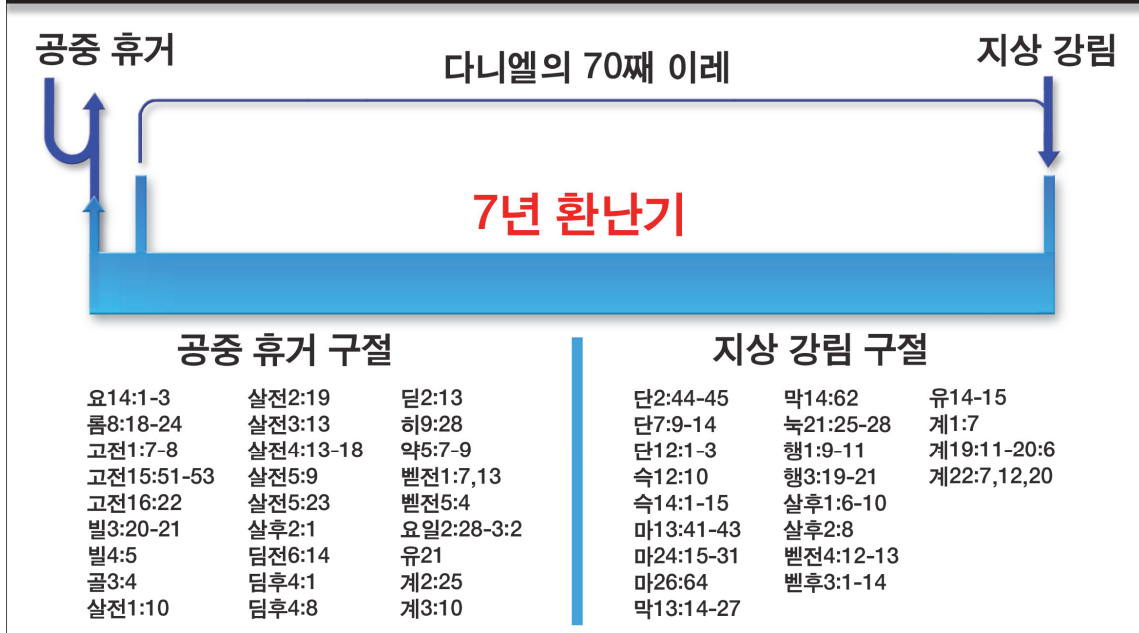
지파들이 통곡한다. 회개 혹은 공포의 눈물, 유대인들의 후회와 회심(슌12:9-14)

공중 강림(휴거)과 지상 강림은 완전히 다르다.

초림 때: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다. 그런데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초림과 재림의 상황: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33년 반, 7년 (*) (*)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성경 구절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비교

	공중 휴거/옮겨짐	지상 강림/왕국 확립
1	모든 성도들이 채여 올라감	채여 올라가는 일이 없음
2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감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땅으로 돌아옴
3	땅이 심판받지 않음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됨
4	표적이 불필요하고 언제라도 발생 가능함	예언된 표적들, 환난기 이후에 발생함
5	구약에는 없음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음
6	성도들에게만 해당됨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줌
7	주의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남	주의 진노의 날을 끝냄
8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탄이 결박됨
9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심
10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심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
11	그분의 백성만 그분을 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봄
12	환난기가 시작됨	천년왕국이 시작됨

8절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24글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하나님의 전지하심

알파와 오메가는 글자, 말씀(요1:1)

시작과 끝마침,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이시다.

엘 샤다이(El Shaddai): '품어 주시는 이', 48회, 구약의 모든 사례에서 이 단어는 '전능자'(Almighty)로 번역됨. 또 이 단어는 율기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29회). 창17:1(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갈과 결혼하여 큰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

결론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 공생애, 사복음서, 대언자,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에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7년 환난기, 우리는 복된 소망 환난 전 휴거를 기다린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롬13:12,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 요한 계시록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계1:9-20

지난 주 <요한 계시록의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5), 땅의 왕들의 통치자 1000년 동안,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5절 firstborn, firstbegotten)

firstborn, 처음 나신 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시간 순서를 말하지 않는다. 의미는 메시아(나의 처음 난 자),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신 분, 다스리시는 분, 소유자,

여기의 firstbegotten, 지기 힘으로 부활하신 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7절, 재림의 기간, 7년(*), 공중 강림 휴거, 7년 환난기, 지상 강림, 성경 말씀을 잘 구분해야 한다.

오늘, < >, 재림 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신다. 두려운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사도 요한의 체험, 우리의 체험, 9-20절 강해

9절

요한은 열두 사도 중 하나, 유일하게 남은 사도, 마리아를 돌봄, 그런데 자기를 형제라고 소개한다(*).

히2:11-12, 형제 자매

환난과 예수님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다.

환난이라는 말의 의미: 큰 근심과 재난. tribulation, 타작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

성경에는 총22회(구약 3, 신약 19)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1.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행14:22)

2. 세상 끝에 창세 이후로 한 번 없었던 환난(계3:10의 시험의 시간, 마24:21, 29),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단12:1); 이런 환난은 말세에 이 땅에 닥칠 큰 환난, 단 한 번

계1:9 요한의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이것은 7년 환난이 아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극심한 기독교 핍박,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의 감독(목사)이었으며 거기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밧모 섬으로 유배됨(*). 그림들 Revelation Illustrated.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이 생김, 인내가 필요하다.

10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

주의 날(Lord's day): 일요일(Sunday) 혹은 주의 날(day of the Lord)

신구약 성경의 주의 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환난기+천년왕국+새 하늘과 새 땅)

심판과 권능과 권위가 모든 창조물에게 뚜렷이 보임, 불신자들에게도

구약성경 대언서들의 핵심 주제

주의 날 개념: 암5:16-20; 출2:1-2; 슥1:14-18; 사2:12-18; 말4:5; 행2:20 등

성경에서 일요일은 항상 주의 첫 날이라 불렸다.

일요일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요한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으므로 주의 날을 영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보인다.

즉 그는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 즉 주의 날로 옮겨져서 모든 것을 보았다. 17절에서 추가 설명

11절

계1:11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타이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 계시록, 첫 번째 명령

일곱 교회에 보내라. 개역성경, NIV 등 현대 역본들은 '아시아에 있는' 제거 (*) (*)

일곱 교회: 실제의 일곱 개 지역 교회, 교회 시대의 일곱 종류의 교회 형태, 교회(성도)의 일곱 가지 속성, 교회사회의 일곱 교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3:10)가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있으므로 잘 안 맞는다.

12절

일곱 금 등잔대와 예수님(12-13) (*) (*)

일곱 금 등잔대=일곱 교회(1장 20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교회는 등불이 아니라 등잔대이다. 그리고 개역성경처럼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이다.

candlestick 아마도 휴대용 기름 등잔대, 아니면 유대인들의 등잔대

13절

영광 중에 있는 사람의 아들(딤후2:5), 66년 만에 다시 봄

그리스도는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 계심, 즉 교회들 안에 계심, 교회의 소유자(마16:18)

교회는 그분의 몸, 구원받은 자들만 교회(마28:20), 세상의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땅에 있을 때 사람의 아들로 대언자,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제사장, 재림할 때는 사람의 아들로 왕, 지금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심(히2:17-18) (*)

14-16절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영광

1. 머리와 머리털(14): 알털같이 희다(단7:9)

2. 눈(14): 불꽃 같다, 전지한 눈(히4:12)

3. 발(15): 정제된 놋 같다. 심판 의미, 나중에 발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계19:15).

4. 음성(15): 심판하는 음성(마25:41)

5. 오른손(16): 손에 일곱 별을 자기고 계신다. 20절은 별이 천사임을 보여 줌, 여기의 천사는 angelic being이 아니라 사자(messenger)를 뜻한다. 회당의 천사, 목사(감독)의 권위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잠시 후 20절에서 설명

6. 입(16),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성령의 검(엡6:17; 히4:12), 여기서의 사람의 아들의 검, 심판의 검(계19:11-15)

7. 용모(16), 변화산의 주님(마17:2; 계21:23; 말4:2)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

17절

요한이 위엄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짐(66년의 차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변화산 체험(마17, 요21)

마16:28, 17:1-8, 모세(율법)야 엘리야(대언자)가 존중하는 분

요21,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용서, 그에 대한 핍박(18-19)

베드로의 질문(21), 예수님의 대답(23), 핵심: 내가 올 때까지는 그는 죽지 않는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요한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100년경에 죽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왔는가?

예수님은 계시록의 재림의 환상 계시를 통해 이미 요한에게 오셨다.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셨다.

18절

나는 살아 있는 자다.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5)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 지옥과 사망은 짝으로 같이 다닌다. 성경에 총 13구절

사망은 상태, 지옥은 장소, 열쇠는 권세

넷째 봉인, 창백한 말(6:8)

계20:13, 14

우리는 문제가 없다(히2:14-15). ★★★ 적용

19절

계시록은 세 단원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원 구분이 되어 있다. (*)

1. 과거(계1:10-20)

2. 현재(계2:1-3:22)

3. 미래(계4-22장)

20절

천사: 설명한 대로 원래 의미 임무 수행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1:14).

대개는 말을 전하는 사자(메신저), 영어의 angel, 앙젤로스

여기의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회당은 원래 집회를 뜻하지만 교회와 비슷하게 후에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었으며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쪽 편은 율법서가 담긴 궤가 있으므로 신전이라 불렀고 동쪽 편은 사람이 모이므로 회당의 몸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신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앉았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마주 보고 반대편에 앉았다. 장로들이 앉은 곳은 좀 더 귀한 곳으로 생각되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마23:6). 여인들은 격자창 등으로 구분된 발코니에 앉았다.

모든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열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 회당의 치리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당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연유로 천사로 불린 것으로 보인다(계2:3).

별은 천사들(목사들), 별은 마귀들을 가리키기도 한다(계12:4).

내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계시된다. 구약에서는 감추어졌으나 신약에는 드러나는 비밀
일곱 별과 일곱 교회의 신비, 이것들의 해석은 2-3장
이제 2장부터 교회가 나오기 시작한다.

결론

초림 때의 예수님과 재림 때의 예수님은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초림: 베들레헴 마구간, 목수의 아들, 가장 비천한 모습

재림: 요한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 세상과 불신자들의 심판자로 오신다.

중요한 점: 예수님의 신부는 환난기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

즉 우리는 환난기 바로 전에 휴거를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구원, 비구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듣고 읽고 지키면 깨닫게 된다.

잠8:9,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계시록 역시 영감을 받은 책(딤후3:16-17)

계시록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을 밝히 앞으로써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이겨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마침 요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첫 사랑을 버리고 멸망한 교회

계2:1-7

지난 7시간, 요한 계시록의 기초, 배경 설명,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셔서 왕국들을 통치하신다.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영광의 왕, 주님의 계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에베소(*) 2-3장,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형태: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아는 사실, 책망할 것, 회개할 것,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 준다.

주님의 모습, 교회의 현실, 합당한 처방

오늘, < >, 우리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배경

에베소는 BC 197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 그 지역의 수도, BC 129년경 로마에 편입됨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 모든 교역로의 중심지이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에베소 이름의 뜻: 흠모할 만한 인구 25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아테네 (*) (*), 위키 백과, 히스토리 채널 또한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애나' 신전(행19:35)이 있었고 황제 숭배와 신비 종교, 마술 등이 성행하였다. 다이애나 여신: 땅의 풍요, 다산의 여신, 신전 제사장, 매춘, 부도덕의 최고봉

다이애나 여신 신전(*), 72m*129m,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2배, 당시 인류 최고의 신전(*) 또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권이 부여된 자유 도시였다. 자유 도시란 로마에게 충성하는 도시에게 붙여진 칭호였으며 따라서 그 경계 내에서는 자치가 인정되었고 군대도 상시 주둔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은 자유로운 상거래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이었다.

그러나 에베소가 얻은 명성은 이교도들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어디서나 행해지는 부도덕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결국 그곳은 향락과 퇴폐의 도시로 몰락하였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제3차 선교 여행 때는 이곳의 두란노 학교에서 직접 2년 이상 목회하기도 했다(행18-20장 참조).

처음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눈물로 경고하며 세운 교회로서 영적으로 활기에 넘친 교회였다(행20:19).

계2-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했으며(딤후 추신) 또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여 주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회당도 있었다(행18:19; 19:17).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 얼마동안 전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났다(행 18:18-21).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에 거기를 들러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교회 시작, 거기서 약 3년 동안 체재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였고(20:31) 그 결과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행19:10).

본격적으로 교회가 형성되며 그 온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수고 때문이었다.

사도 요한 인생 후반부 수십 년 간 에베소 거주, 열심히 선포하다가 유배됨, 요한 1,2,3서 에베소에서 기록함

왜 장황하게 소개하였는가? 전통, 지식, 교리 등에서 으뜸가는 교회라 해도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주 예수님(2:1)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천사는 인간 목회자, 별처럼 빛나는 안내자, 메신저, 회개하라(2:5)

예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등잔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1절)
 계1:20은 금 등잔대가 교회라고 말하므로 에베소 교회에 드러난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요, 기초요,
 중심이요, 머리되는 분이다(마16:18).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2-3)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2:4)라는 부정적인 인상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많다. 에베소 교회는 첫 세대가 가졌던 복음의 열정을 잃고 있었으나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결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다.

1.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

예수님은 먼저 2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다. 이 ‘행위’는 곧 ‘믿음의 행위’(살전1:3; 엡2:8-10)이다.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약2:26) 엡2:8-10,

2. 서로 섬기는 교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네 수고(labour)를 안다”고 하셨다. 수고에는 이미 섬김과 봉사가 들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막10:45).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3.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주님은 “내가 네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모든 교회는 핍박의 대상, 황제 숭배 반대 에베소 교회는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졌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

4. 성별된 교회

예수님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초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세속 문화와 그것을 가져오는 자를 거부했다는 점이다(롬16:17 참조). 엡5:10-13

5. 순수한 교회

주님은 또한 “네가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다. 사도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하며(행1장) 고후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의 표적들을 보여야 한다. 즉 죽은 자를 살리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낫는 표적을 말한다(행19:12).

바울의 경고(행20:29-31)

초대교회에는 사도적 계승권(Apostolic succession)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교부라 하는 자들

카톨릭(베드로로부터), 오순절 주의(은사의 표적), 현시대 신사도 운동 하는 자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사도들을 인지하고 그들이 교회에 받을 붙이지 못하게 한 순수한 교회였다. 고전11:13-15

6. 낙심하지 않는 교회(3절)

예수님은 3절에서 “네가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말씀하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을 하려 하는데 방해가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낙심한다(갈 6:9). 꾸준히 밀고나간다. 신실하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책망(4)

첫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졌다. 둘째,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식어졌다.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 특징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의 ‘처음’, 그리스어 프로토스, 가장 좋은 것, 즉 최상의 사랑을 잃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고후11:1-3), 정결한 처녀, 이것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말로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특히 재림의 때, 고전16:22를 기억해야 한다.

권면(5)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해야 한다. KJB, 신약 교회, 영혼의 자유 처음 기쁨
이를 위해 먼저 회개해야 한다.

회개; 뜻을 돌이키는 것,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세칭 구원과 등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회개 기도 불필요
이것은 큰 거짓말이다.

여기 에베소 교회 등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진다.

성경의 회개: 구원의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행11:18), 단회적 회개

요13:8-10, 목욕, 발을 씻는 것

여기의 회개는 구원을 다시 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르게 정돈하라는 말이다.

처음 행위를 하라는 말이다. 최상의 행위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등잔대를 옮길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를 옮긴다.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함(AD 431년).

6-7세기 지진, 아랍 세력의 점령, 완전히 빛을 잃고 폐허가 되고 말았다.

칭찬(6)

참과 거짓을 정확히 판별해 낸 교회: 바울의 경고(행20:29-30)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니콜라당이라는 무리가 거짓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니콜라당은 ‘정복한다’는

의미의 ‘니코’와 ‘일반 성도들’을 뜻하는 ‘라오스’가 결합된 말로 ‘일반 성도들을 억누르는 자들’이란
뜻이다. 주교, 감독, 추기경, 교황 등이 나옴. 성직자 계급 체계(벧전5:1-4)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거짓 교리를 판별하고 그것을 미워했다.

보상(7)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롬8:9)

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듣는다. 영적인 귀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의미: 에베소 교회의 문제, 처방 등은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

이기는 자(overcomer, 요일4:4; 5:4), 결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연약함과 시험을 이기는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

거짓 교리를 물리쳐 이기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말씀이다.

구약 시대의 낙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고후12).

생명나무(창2:9), 에덴동산, 접근이 금지됨, 계시록에서는 접근이 허용됨

열매를 먹는다는 것 의미, 이것을 먹어서 생명 연장 아니다. 계22장의 생명나무 잎사귀들, 민족들 치유
교회 시대 성도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의미

교훈

교리가 충만하고 섬김 사역이 풍성하다고 바른 교회는 아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끝이다(잠4:23).

호14:1-4의 교훈을 받자.

며 요한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핍박을 받으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계2:8-11

계시록 강해, 이미 8번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주, 에베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 회개하라. 결국 멸망
오늘 서머나(*)

2-3장,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일곱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형태: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아는 사실, 책망할 것, 회개할 것, 귀 있는 자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 준다.

주님의 모습, 교회의 현실, 합당한 처방

오늘, < >, 믿음,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

배경

서머나는 에베소 북방 70km에 위치한 항구 도시,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의 작가 호메루스의 출생지

주전 300년 경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로 세웠다. 이곳은 부요함 때문에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등의 칭찬을 받았다. 에베소 다음 가는 도시

서머나는 처음부터 로마에게 충성을 바쳤고 이러한 충성의 결과로 한때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자유 도시가 되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거하면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 (*), (*), (*)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도시 한가운데서 큰 핍박을 받은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이다.

이 도시의 이름은 영어로 'Smyrna'인데 이것은 'myrrh' 즉 몰약을 뜻한다.

동방의 지혜자들의 선물 중 하나 몰약(마2:11, 4666), 예수님의 죽음, 니고데모의 몰약(요19:39) 서머나(4668) 동일한 어근

몰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물품으로 사망과 고통을 상징한다.

서머나 교회는 죽기에 이르는 큰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교회, 그래서 주님은 대표적인 교회들의 특성을 보여 주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그중 하나로 택하신 것으로 보인다.

로마 시대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

주후 63-주후 313년, 250년 동안 10번의 역사적인 큰 핍박

첫 번째가 네로: 바울 베드로 순교

두 번째가 도미티안, 요한 등 황제 숭배, 당시의 서머나 교회, 극도의 핍박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산을 약탈하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사실 서머나 교회를 비롯해서 대다수 초대 교회 신자들은 거의 다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황제 숭배 도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목사),

주 예수님(2:8)

왜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까? 믿음을 지키려고, 사도 요한처럼 인내를 가지고 환난에 참여함 (1:9),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당시 고난과 핍박의 결과는 죽음,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으로 나타나신다. 나는 부활의 주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 유대인들, 그 뒤의 사탄과 마귀들, 모두 내 권세 아래 있다. 그들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요약: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분이시다. 이것은 환난과 궁핍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 적절한 표현이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2:9)

예수님은 생존을 위협 당하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9절).

행위는 믿음의 행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3:15의 행위는 악한 행위

환난: 고통, 압박, 짓누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 겐세마네, 기름 짜는 곳, 올리브가 짓눌려야 기름이 나온다.

겐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 내가 뜻하는 것(my will)이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마26:39, 42). 눅22:44,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땀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기름을 짤 때 눌러야 하듯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환난이다. 이것 뒤에 십자가와 부활 서머나 교회는 겐세마네의 예수님처럼 그분의 증언을 굳게 붙들었기에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으깨어지고 있다. 이런 환난과 순교의 기름을 통해 신약 교회가 전달되어 21세기에 우리에게까지 왔다.

딤후3:12: 반드시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도착한다(행14:22)

물론 이런 환난은 7년 환난기의 한 번밖에 없는 환난과는 다른 환난(마24:21)

이들의 궁핍: 믿음을 지키다 보니 직업 등을 제대로 갖기 어려웠다. 실질적인 가난

부요한 도시에서 서도들만 가난하게 됨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겐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후 6:10).

이것은 영적으로 부요함을 말한다.

이상한 현상, 고후8-9장, 마케도니아 교회, 극심하게 가난한데 엄청난 헌금(8:1-3)

환난과 궁핍 외적인 것, 자칭 유대인들의 신성모독, 비방은 내적인 것

여기의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다

즉 교회 내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대인 혹은 속으로 유대인(롬2:28-29)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생겨났다(할례, 안식일, 절기 준수 등) .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모든 육적, 영적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려 한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대체 신학

이것이 결국에는 카톨릭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의 무천년설, 지금 교회 시대가 왕국이다.

안식교, 여중, 하나님의 교회(유월절), 메시아닉 주도 이와 비슷한 부류들

영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오류이다.

주님의 말씀, 이들은 사탄의 회당인 자들

사탄: 대적하는 자, 비난하는 자(욥1:6), 회당: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 원래는 모임, 집회를 뜻함.

즉 이들이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고 한 마디로 신성모독이다.

blasphemy,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

1948년 5월, 저 땅에 메시아의 천년왕국

결국 이런 자들이 교회를 지배하면서(계3:9) 어거스틴이 등장하여 무천년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완성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의 세상 지배 완성, 무어 1000년간 중세 암흑 시대, 그 뒤 칼빈주의, 프로테스탄

트들의 무천년주의, 이것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신성모독

이런 자들이 교회의 교부라고 불리고 심지어 성경을 변개하는 일을 수행함(제롬, 오리겐, 어거스틴 등)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조심스레 보고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

가담하면 사탄의 회당, 신성모독

우리는 신약 교회를 해야 한다. 구약식 교회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신실한 교회에 대한 축복(계2:10)

네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사43:1-3).

고난을 면하게 해 주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 준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여기서 열흘은 문자적인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앞뒤 문맥상 문자적인 10일로 보기에는 어렵다. 교회사적으로는 이것을 교회사의 예언으로 보고 로마 황제들의 공식적인 10번의 핍박의 기간으로 해석한다.

주님이 말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영생(혹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준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에 합당한 영광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자.

주여, 제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환난기를 끝까지 통과해서 휴거받게 해 주십시오,

마24:13, 여기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다. 계2:10과 다르다.

24:14, 세상 끝,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끝까지 예수님이 지켜 주신다.

고전1:7-9, 왜? 신실하시므로

계2:10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가 누릴 보상의 약속이다.

이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왕관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생명의 왕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신실했는가에 따라 주시는 보상이다. 약1:12, 벰전 5:4 등의 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마귀의 핍박과 시험을 이긴 연단된 믿음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신실하다'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며 성실히 전파한다는 의미이다(고전4:1-2).

Faithful, 이것은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대로 산다는 말이다. (*)

그런데 개역성경 등은 충성하라로 바꾸어 놓았다.

신실한 것과 충성된 것은 다르다. 전자는 믿음, 후자는 행위

대다수 한국 성도들은 교회,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다. 믿음 면에서 신실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 충성할 것이다. 교회나 목사가 아니라 주님께

보상(2:11)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귀 있는 자만

계2:11 이기는 자(요일5:4)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이다.

둘째 사망(계20:6, 14; 21:8)

구원받은 사람,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죽음: 분리, 첫째 사망 몸이 영과 혼에서 분리된다.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기지 못하면(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

다시 이야기한다. 이기는 자는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다. 밤새 기도하는 등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결론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정신적 영적 고통이 크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환난을 견디며 신실하게 버틸 수 있는가?
고전4:1-2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순교자 폴리갑

폴리갑은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계 2:8-11)의 감독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 화형에 의해 순교한다.
당시 황제 숭배,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큐리오스)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를 수 없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진 폴리갑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죄로 인해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그가 죽기 전에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한 관리가 폴리갑에게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10 요한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 세상과 짝이 되어 세상과 결합한 교회
계2:12-17

계시록 강해, 이미 9번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두 주 에베소, 서머나, 오늘은 < > 버가모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버가모

버가모는 에베소 북방 160km에 위치한 도시로 주전 5세기에 이미 잘 알려진 도시였다.

항구 도시가 아니라 25킬로미터 바다에서 떨어진 도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붕괴하여 생긴 셀레우코스 왕조 때는 그 왕조의 수도였다.

단2장,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뒤 주전 133년경에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되면서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큰 도시로 발전했다. 요한 당시 무려 250년 간 소아시아의 수도 (*),(*),(*),(*)

또한 이 도시는 문화의 도시로도 잘 알려졌는데 이곳에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에는 20만권 이상의 양피지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었다. 벨럼이라 불리는 양피지가 여기서
개발되었다는 전승이 기록이 있다. 도서관, 책들,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 문화를 지키는 역할
이곳은 종교의 중심지로서 주신(主神)인 제우스(Zeus)를 비롯하여 승리자 아테네(Athene), 지도자
디오니소스(Dionysos) 등의 신전이 있었다.

더구나 이곳은 황제 숭배까지 성행한 곳으로 각지에서부터 오는 순례객들로 언제나 번잡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 위치한 버가모 교회도 이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버가모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신실한 자도 있었지만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니콜라당의
교리에 동조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버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도시가 우상숭배의 본거지임을 지적하셨다.

주 예수님(2:12)

예수님께서 양날 달린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계1:16) 두 가지 의미

1. 엡6:17(*), 13 전신갑주, 14-17, 17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4:12-13, (*) 양날이 달렸다: 인간 폐부의 가장 깊은 곳의 의도까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므로 양날 달린 검을 지닌 주님은 정확하게, 예리하게 깊숙하게 심판하는 분, 계19:15 (*)

따라서 이런 모습의 주님은 즉시 심판하시는 분,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이다.

버가모란 말의 뜻: 여러 번 결혼하다.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세상과 짝이 되어 하나가 된 것 의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짝한 교회들,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2.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요15:3), 기쁘게 하실 때에도(요15:11), 화평을 주실

때에도(요16:33),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도(요17:17) 말씀을 쓰신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2:13-15)

1. 고난을 당한 버가모 교회(13절 초반부). 네 행위를 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에서도 믿음의
행위를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의 원인은 그 도시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탄의 자리: 여러 의미

1.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 니므롯(창10:8-9), 세미라미스, 담무스, 여러 가지 신비

그런데 이 바빌론 신비주의 체제의 사령부가 BC 133년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될 때 바빌론에서

버가모로 옮겨짐.

사도 요한 당시에도 사탄의 자리가 존재함. 결국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과 함께 로마로 옮겨감
콘스탄틴 대제는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묶어 버림. 바빌론 신비주의를 채택함
그 뒤 어거스틴, 제롬, 암브로스 교부들, 로마 카톨릭 체제, 중세 암흑시대
이런 의미에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천주교의 유래(*)

- 2. 로마는 백성들에게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신전을 지어 그것을 구체화했다. 특히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어느 지역보다 먼저 카이사르의 신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백성들이 황제를 '주'(Lord)라 부르게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주(Lord)로 믿는 버가모 성도들은 이를 거부했고 교회는 자연히 핍박을 받았다.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눈에 불충성하고 반역하는 자들로 비추어졌기에 박해는 더 심했다.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벧전4:14)

신실한 증인 안디바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순교한 것으로 보인다. 안디바에 대한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 교회의 지도자. 증인은 마르투스(그리스어),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온다.

2. 믿음을 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13절 중반부)

나의 믿음, 나를 믿는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내게서 오는 믿음
크리스천 믿음, 마16:18을 이루는 교회

핍박이 너무 강하다 보면 성도들은 위축되고 세상과 타협하기 쉽지만 버가모 교회는 자기들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굳게 지켜 나갔다. 특히 버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고 그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음을 고려할 때 버가모 교회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안디바처럼 신실한 증인이었다. 터툴리안이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 안디바는 늦쇠 가마에서 서서히 구워지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2:14-15)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14).

1.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 우상 숭배

14절은 우상숭배자들을 가리켜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발람은 40년 광야 생활 끝 부분에 등장한다. 시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브올 숭배를 가르친 장본인이다. 그의 감언이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여 큰 재앙을 당했다(민22:1-9; 25:1-5; 31:16). 25:1, 9(24,000명 죽음)

베드로의 책망(벧후2:15-16)

우상 숭배는 항상 타협과 함께 들어온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풍습이 들어와 기독교와 혼합되어 천주교를 만들어 냈다. 주후300년(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호를 긋는 풍습), 375년(성인과 천사 숭배), 394년(미사 제도 시작), 431년(성모 마리아 숭배), 500년(성직자 계급 체제 확립, 옷의 구별), 526년(중부성사), 593년(라틴어 예배), 600년(중보자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림).

- 2.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음행(고전6:18-20)

- 3.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2:15), 2:6, 주님이 미워하는 것, 구약식 제사장 체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회개 촉구(2:16)

내 입의 검(계1:16)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허탄한 교리를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일부분이지만 회개는 온 교회를 향한 명령이다.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이 교회 성도들과 싸우실 것이다.

배도한 자들 심판, 용인한 자들 징계, 주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2:17)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

주님은 1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신다.

이기는 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이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출16:32-34를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일 오멜을 가득히 담아 주님 앞에 있는 증언 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우리 주님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숨겨진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빌4:19).

만나의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요6:48-51),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복

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고대 사회에서 흰 돌은 무죄의 의미로 쓰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배심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때 흰 돌을 놓으면 무죄가 되었다. 이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결론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 세상과 하나가 된 것

교회에 세상을 들여온 것, 천주교 같은 바빌론 음녀 체제를 만든 것

세상은 무엇인가?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서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요15:19).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시스템, 주님을 대적하게 하는 체제, 철학, 문화

요일2:15-17,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다. (2:17)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약4:4,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롬12: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딤후2:11-13

우리는 어떤가?

세상 속에서 산다. 세상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는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철학, 방법, 가치관, 문화, 언어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본인, 가정, 교회

고후6:14-17

11 요한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멸망한 교회 계2:18-29

계시록 강해, 도전, 모험, 동시에 엄청난 공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한다.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세 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오늘은 < > 두아디라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두아디라

배경: 버가모는 7 교회 중 가장 북쪽(*), 거기서 동남쪽으로 65km에 두아디라 위치.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테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공업 도시로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의 상업적 발전을 위해 유대인들을 일찍 받아들임,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믿고 낭독하는 소수의 무리가 이 도시에 있었음,

이곳은 요한 계시록에 소개된 일곱 도시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이다. (*) (*) 하지만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격인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비대가 주둔했으며 염색 공장으로도 유명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녀 역시 옷감 장사였다. 행16:14,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빌립보는 직선 거리로 350km, 돌아가면 450km 떨어진 유럽의 도시, 아마도 유대인들의 영향, 하나님 경배, 자주색 옷감(*)

그래서 이 도시의 주민도 직공들과 상인들 그리고 군인 등 여러 부류로 구성되었고 이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회원들은 거의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머나나 버가모의 경우처럼 바울이 에베소 체재 중에 전도해서 세운 것으로 추측되다. 혹은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돌아가서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면에서 가장 불품없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 가장 긴 편지가 주어진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장 긴 서신: 고린도전후서 29장, 즉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 암시함

주 예수님(2:18)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매우 두려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 누군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정제된 발(계19:15). 정제됨은 거룩함을 뜻한다. 발은 짓밟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단 한 번 이곳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곳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태양신이나 로마 황제 보다 뛰어난 위엄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두아디라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당이 있었으며 이 아폴로가 두아디라의 주신으로 숭배를 받았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두아디라에 여러 가지 우상이 즐비하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사용된 듯하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통찰력과 심판자의 권위를 지닌 그리스도를 잘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2장 27절의 철장 권세를 지닌 분과 연관되어 있다(시편2편 7-8절). 메시아 시편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2:19)

주님의 칭찬이 먼저 나온다. 거짓 가르침과 악행이 팽배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선한 성도들이 존재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충성했던 그들의 행위를 아셨다. 주님께 서 행위를 두 번이나 안다고 하시며 또 마지막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셨다. 즉 믿음의 행위에 진보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구체적인 선한 행위는 나오지 않음, 그것은 영적 분별력(2:2)과 교회의 순수성(2:6) 즉 봉사 등 외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내적인 성장, 성숙과 분별력은 없는 교회
이 교회에는 황제 숭배 문제가 크지 않았다. 이 교회의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주님의 책망(2:20)

두아디라, 그리스 이름의 뜻은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사, 천주교의 미사처럼 헛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이세벨이라는 거짓 대언자를 용납한 것이다. 행음, 우상 숭배의 희생 제사 (*),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자들이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이다.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다.

출애굽기 말씀(7:1-2)

대언자의 효시는 아벨이다(눅11:50-51)

구약 시대 하나님의 경고: 거짓 대언자가 일어난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신18:20).

구약 시대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 거짓 대언자(렘14:14,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신약성경 (단수 4 복수 7)

예수님의 경고(24:11),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특징: 직통 계시를 받는다. 기도 입신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 대개는 헌금을 강요한다. 자기 교회만 교회라고 한다. 자기 설교를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등.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 없다(히1;1-2).

꿈, 환상, 점치는 기도 받으러 다니는 일들 다 영적을 음란한 일들이다.

더욱이 신약 시대에는 여성 대언자가 존재할 수 없다(딤후2:12, 3:2).

구원받지 못한 이 여인이 교회로 들어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함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인지는 모른다.

확실한 것: 이 여자가 구약 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행위를 한 여인이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시대, 율법은 모세, 대언자는 엘리야 발람과 이세벨은 율법 시대, 대언자들의 시대에 우상 숭배를 부추긴 장본인들이다.

이세벨은 왕상 16장에서 아합 왕의 아내로 등장한다(16:29-33).

31절 시돈 사람들의 왕 옛바알(바알이 함께한다)의 딸 이세벨,

옛바알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제사장,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시키려고 이세벨을 아합에게 시집보냄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것을 무시함

이세벨은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을 위한 제사장들을 데려옴

여호와 신앙 멸절, 엘리야의 고백 주 여호와를 섬기는 대언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왕상19:10).

음행과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이스라엘의 멸망 초래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도 이런 것들을 가르침

이원론(Dualism):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너희가 몸을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신전에서 의 음행, 우상 숭배 허용

교인들의 다수는 그런 가르침에 끌려가 믿음을 버림

21절: 이러한 이세벨에게 주님은 마치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다(2:21).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요3:19)

22절: 주님의 심판. 하나님은 거짓 대언자들과 그들을 따른 추종자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에게 내려진 심판은 죽음이며 이러한 심판은 이세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그녀와 함께 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침상은 역병 등으로 인한 죽음의 침상, 여기의 큰 환난은 계4장 이후의 큰 환난 즉 세상에 단 한번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7년 환난이 아니다. 극심한 고통

23절: 주님의 심판. 하나님은 거짓 대언자들을 용납한 자들(그녀의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망으로 벌하신다.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분(렘11:20; 17:9-10)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천국, 지옥 모두

앞뒤 문맥으로 보아 여기 이세벨과 그녀의 자식들은 교회에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 교회 파괴 세력이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 마리아 신앙(*)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세벨과 같은 거짓 대언자를 추방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분(렘11:20; 17:9-10)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작정해야 한다.

바르게 사는 성도들(24)

반면에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소수의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 사탄의 깊은 곳을 안 자들, 마귀 숭배자, 사탄 숭배자

영지주의자들: 구원받았으면 몸을 가지고 짓는 모든 죄 용서되었다.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말3:16-17)

이단은 항상 자기들만이 아는 신비가 있다고 말해 사람을 유혹한다. 여호와와 증인, 몰몬, 지방교회, 기타 한국에 무수한 자생 이단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언가 자기들만의 신비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외의 신비한 것을 원치 않는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상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이 그대로 용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리가 중요하다.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면 결코 거짓 교리에 넘어갈 수 없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설 때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 성경을 믿고 지키고 전하는 교회, 자식들 바르게 키우는 교회
딤후2:11-13을 실천하는 교회

주님의 권고(25)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교리와 믿음을 굳게 잡고 그 시험을 물리쳐 이기라고 권고하셨다.

주님의 약속(계2:26-27)

이기는 자(요일5:4-5)

예수님의 믿음에서 난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게 되어 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게 된다.

시2:8, 9, 메시아의 1000년 왕국. 믿음의 승리자에게 메시아의 통치권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

28절: 승리하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다. 새벽별(계22:16), 예수님 자신, 그분의 영광과 빛

29절: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따라야 한다.

12 요한 계시록의 사데 교회: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계3:1-6

왜 계시록을 공부하는가? 미래 예측, 재림의 소망,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2:7, 11, 17, 29; 3:6, 13, 22).
2-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여러 특성을 가진 7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네 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은 < > 사데 교회
1세기 교회, 지금 교회, 우리 성도 각 사람, 인간의 본성 불변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배경

사데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헤르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의
해발 약 450m 고지에 위치한 요새형 도시였다(동북서는 거의 절벽, 남쪽에서만 접근 가능). 이
도시는 주전 12세기경에 세워짐. 주전 6세기경에 루디아 왕국(주전 1200-546)의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였으나(*) 그 후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었고 결국에는 BC 133년경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 (*)

사금이 흐르는 팍톨루스 시내가 이 도시의 부의 원천이기도 했으나 이는 사데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사데는 또한 양탄자, 양털 옷 생산으로 유명했고 부유했지만 지진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세계 최초로 금화 동전 주조, 이솝 우화의 이솝(BC 600년경)은 사데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사데 교회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진 교회였던
것 같다(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시 에베소 두란노 학교 2년 선포, 행19:9-10). 에베소 북동쪽 80km
2세기 후반, 사데 교회의 감독 멜리토(변증가)의 등장

그러나 그 도시의 퇴폐풍조가 교회에도 숨어들어 사데 교회는 안일과 부도덕으로 타락한 교회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사데 교회는 사데라는 도시의 운명과 매우 비슷하다. 즉 명성을 잃고 죽은 도시, 죽은 교회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교회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사데 교회의 특징은 한 마디로 '죽은 교회'라는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나쁜 명칭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뛰어갔으나 가
보니 거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경우와 비슷하다.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경우
교회의 네 단계; man, movement, machine, monument, 사데(넷째 단계), 여전히 소망이 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 우리 자신

주 예수님(3:1)

계3:1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라고 말씀한다.

일곱 영: 성령님이 7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강조함(계3:1; 4:5; 5:6)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 성령님의 내주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에게서 온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은 일곱 영이라는 완전한 표현을 통해 죽어 가고 있는 사데 교회에 성령님의 무한한 영적 은혜를
주려고 하시면서 지금의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람의 인위적인 프로그램은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창출하지 못한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일곱 별(계1:20)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 즉 지도자들,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는 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어쩌면 사데 교회의 목사 혹은 목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데라는 교회에 성령님의 파워가 떨어지고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데 교회의 특징(3:1)

사데라는 말은 “도망하는 자”, “빠져나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을 가리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오염되어 결국 1절에 언급된 것 같이 사데 교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간단히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꾸짖는 일을 시작하신다.

이 교회에는 칭찬이 없다. 박해나 반대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의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 사데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교회였다. 성도들은 모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직이나 재정도 결코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았다.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교회, 마치 사데라는 도시처럼

그러나 실상 사데 교회는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1. 세상에 의해 점령됨(철학, 문화, 운영 방침), 2. 내부 부패, 3.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주무름, 지난 주 두아디라 교회: 50%, 오늘 사데 교회: 95% 이상이 죽은 자 유기체가 조직체가 되고 말았다.

죽어 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없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엡2:8-10), 약2:26

교회 사망의 원인

1.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지낼 때
2. 영적인 실체보다는 교회 의식에 빠질 때, 무미건조한 예배(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다)
3.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없을 때
4.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치중할 때(기복 신앙, 번영 복음)
5.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6.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교리적인 신조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7.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잊을 때
8.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교인 수, 헌금, 교회 건물, 주변 평가 등에 상관없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즉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기억해야 할 것: 사데 교회의 행위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사데 교회는 구약 시대 삼손과 비슷하다.

엄청난 힘, 용맹함, 그러나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난다.

들릴라의 조르기(삿16:16), 그는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

결국 비밀을 말하고(17) 머리털이 잘린 채 잡혀서 종이 되고 말았다(19). 두 눈이 다 빠진 채(21) 이것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의 비극(16:20).

동일한 사람, 이름, 그러나 힘이 사라졌다.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권고(3:2)

사데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 원가지에서 떨어져나간 가지는 말라죽게 되는 것처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요15:4-6).

사데 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타락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었다.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고 실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회는 한 마디로 죽은 교회이다. “죽었다”는 표현은 매우 무서운 말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데 교회 회원들의 대부분이 교회는 나오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현대 교회의 문제이다. 우른 어떤가?

주님의 해결책

1.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하신다(롬13:11). 왜? 깨어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무지하게 지내면 안 된다. 무관심하게 지내면 안 된다. 내 문제, 아이들 문제 사데는 난공불락의 도시, 그런데 과거에 두 번이나 적군에게 요새를 빼앗긴 적이 있다. 군사들과 지도자들의 태만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누워서 잠자다가

2. 아직 남아 있지만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살피야 한다.
3. 교회의 깨어남의 첫 단계: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세 암흑시대,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및 국가
우리는 문제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회개 촉구(3:3)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살전4:1).

처음 복음을 받을 때의 상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우리 교회 올 때의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진실함

건전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 죄, 구원, 성화, 재림과 휴거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뒤 그냥 정죄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책망을 받을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는 자세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은 사람이 잠자는 때에 몰래 온다.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른다(마24:42).

밤의 도둑, 임박한 심판(마24:43; 눅12:39; 살전5:2; 뱀후3:10, 계16:15 등)

여기서는 등잔대가 없어지거나 옮겨지는 것, 결국 사데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3:4)

사데 교회에는 전반적인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풍조에 몰리지 않은 순결한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유23), 죄와 세상에 몰리지 않은 자들

성경에서 옷은 종종 성품을 뜻한다. 좋은 크리스천 성품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

사데는 하얀 양털 옷, 더럽혀진 옷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영적으로 아직 살아 있는 자가 소수 있다.

말3:16-17

엘리아 시대, 7000명의 남은 자들(롬11:1-5)

이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닌다.

흰옷: 순결, 승리, 주님의 인정(계6:9-11),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신다.

계19:7-8, 주님의 신부에게도, 성도들의 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3:5)

생명책(빌4:3; 계3:5; 계17:8; 20:12, 15; 22:19)

데이빗 리건, 팀 라헤이 목사님의 설명, 성경 Q & A 6,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계3:5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생명책(book of life)

살아 있는 자들의 책(시69:28), 그들(악한 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의 책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죽여 주십시오.” 이 책에는 의로운 자, 사악한 자 모두 살아 있는 자들은 다 기록됨. 죽으면 살아 있는 자들의 명단에서 나간다.

하나님의 책(출32:32-33), 모세: 32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32:33)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주의 책, 이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책(시69:28).

거기에서 지우 버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여 달라는 것, 영원히 지옥에서 죽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책은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여 생명을 부여하신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몸이 모태에서 형성되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다윗의 시편(시139:16).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 우리의 잘못된 생각: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한 신자든 불신자든 그의 이름은 생명책 즉 살아 있는 자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즉 불신자 즉 죄인들의 이름은 거기서 지워진다.

계3:5는 구원을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위협 구절이 아니다.

오히려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구절이다.

사람들의 주장: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요일5:4-5,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이긴 사람

3:5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의 메시지이다. 2:11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다.

지워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안전하다는 의미

그리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마10:32).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 보장(롬8:28-39), 38-39

사데 교회에 남아 있던 몇몇 신실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격려하신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13 요한 계시록의 필라델피아 교회: 환난 전 휴거를 받는 교회

계3:7-13

올해 계시록 강해, 이미 12번, 나와 성도들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존 맥아더 목사님 50년 목회, 계시록을 100회 이상 강해,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1-22장의 구조, 1:19, 1장은 본 것들, 2-3장은 지금 있는 것들, 4장 이후: 미래 일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당시의 대표 교회들, 교회 시대 대표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은 < > 필라델피아 교회, 환난 전 휴거의 예표

우리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이 교회는 7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모범된 교회이다.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는 교회

‘형제 사랑’(살전4:9)이라는 뜻의 필라델피아는 루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테부스라는 이름의 도시로 건설되

었다. 그 후 BC 159-138년에 ‘버가모의 필라델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아탈루스 2세가 동부 진출의

전초 기지로 이 지역에 도시를 건립하고 자신의 칭호를 따서 이곳을 필라델피아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로/Philo(사랑)’와 ‘델포/Delpho(형제)’의 합성어로서 ‘형제 사랑’을 뜻한다.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이던 아탈루스 2세 사이의 형제 사랑, 유메네스가 먼저 버가모의

왕이 됨(BC 197-160), 그가 전쟁터에 나감, 주변 국가들이 동생을 유혹하여 왕이 되게 하였으나

거절함. 형이 다시 돌아와서 통치하다가 죽은 뒤에 동생인 아탈루스 2세가 왕이 됨, 여기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의 명칭이 나옴.

이곳은 사테에서 44km 동남쪽, 소아시아 고원 지대와 서쪽의 서머나 사이의 중요한 산업도시 역할을

한다. 나중에 가장 큰 도시이던 버가모가 로마제국에 예속됨에 따라 BC 133년경에 이 지역도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이 지역이 포도 재배의 중심지였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주신인 디오니소스 즉 로마

신화의 박카스 신을 크게 숭배했다. BC 17년과 BC 23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 이 도시는 대파되었고

이 도시에는 고대 유적이 남아 있지 않다. (*) (*)

주 예수님(3:7)

1. 거룩한 자(행2:27; 3:14,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진실한 자(요1:17; 14:6; 계6:10)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권능, 권세, 능력을 가진 분, 그러나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다. 행1:8

그래서 성령의 불, 불 침례 강조,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 광란의 도가니

대다수 성도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 소유를 원한다. 삼손의 능력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자신 소개

가장 크게 칭찬받은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이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 Holy One(52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계4:8, 사6:3의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면 교회가 더는 교회가 아니다.

진실하다. 계6:10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요8:32, 14:6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요4:24).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3:8 적은 힘을 가짐, 이런 교회에게 주님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신다.

즉 외적으로는 힘이 적은 것 같았지만 이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다수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10).

에루살렘 교회 일곱 명 선출(행6:3),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힘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쇠는 소유, 권세, 관리 등을 뜻한다, 지옥과 사망의 열쇠(계1:18), 무저갱의 열쇠(계9:1, 20:1), 하늘의 왕국의 열쇠(마16:19), 다윗의 집 열쇠 모두 예수님이 소유자,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쥐신 분 사22:20-24, 특히 22절, 국고를 맡은 쉘나를 쫓아내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긴다는 의미, 시대적 상황, 즉 열쇠를 가진 그를 통해서 군주에게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 소유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3:8-9)

1.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좋은 행위,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다시는도다(삼상2:3). 다 알고 계신다.
2.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행14:27; 고전16:9; 고후2:12).

버가모 외곽 지대에 있던 필라델피아는 전초 기지 성격의 도시였다. 즉 그리스시대에는 루디아 동부 지역(비두니아, 브루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등 (*))을 상대로 한 그리스 문화 및 언어의 전파를 담당했고 기독교 시대에는 비두니아, 브루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의 이교도들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 사도 요한은 필라델피아의 이러한 성격을 간파하여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3:8)라고 했다. 즉 여기서 열린 문이란 브루기아 등을 향한 선교사업의 기회를 암시한 말로 기독교 사회의 끊임없는 도전과 기회를 향해 열려 있는 문을 말한 것이다.

그분이 열쇠로 그 문을 열었으므로(3:7) 아무도 닫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열린 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재미있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 교회이다(3:20)

3. 적은 힘: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끌려가서 배반하지 않았다. 외적인 힘은 약하게 보였다: 수가 적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눅12:31-32, 하나님의 왕국은 적은 수의 무리가 받는다. 내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거룩하고 진실한 것, 열린 문 교회
4. 여기에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9). 서머나 교회에도 이런 자들(2:9) 즉 지상 외형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 신부가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 하는 자들이 있음.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등등

지금 안식일, 유월절 준수

왕국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함,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년주의자들

사탄의 회당,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상은 대적하는 일을 함

마16:21-23,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처형, 매장, 부활, 베드로의 부인 좋은 의도,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실제로 이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주님께서서는 그자들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굴복하게 한다.

시험의 시간과 교회의 면제(3:10)

계3:8, 10 나의 인내의 말(살전1:3)을 지켰다.

말을 지킨다. 성경 보존과도 상관이 있다. 유일한 교회(요14:23, 24)

우리 교회의 책무

특별히 이 교회는 인내의 말을 지켰다. 인내, 믿음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요한1:19)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eep from: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I kept him from going(그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
시간 속에서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다. 즉 시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닥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다. 고전10:13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7년 환난기, 온 세상의 환난(계6-19장; 계6:10; 8:13; 13:8 등)
다니엘의 70이레, 마지막 한 이레, 7년

필라델피아 교회는 환난 전 휴거의 예표가 되는 교회

누가 휴거되는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땅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구원받은 자들,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혼인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부분 휴거, 이겨야 한다 등으로 행위를 첨가하면 그것은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이다.

교회는 결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살전5:9). 3:11과 연결됨(내가 속히 간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시대에 따른 교회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있다.

권고(3:11)

계3:11 네 왕관(딤후4:8)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

여러 종류의 왕관, 보상으로 주어진다.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 등

이 교회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지킬 것을 지키라는 말씀

이기는 자(3:12)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 나가지 않는다: 항상 거기 있다. 하늘에 항상 있다.

기둥: 지구력, 버팀목, 영원성, 영광 혹은 영예, 권능 불기둥, 구름기둥

기둥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하나님의 이름: 소유물이 된다.

도시의 이름: 새 예루살렘, 계21:2, 10

이름: 살 수 있는 자격

나의 새 이름: 아직 계시되지 않은 주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게 될 그분의 이름

성령님의 권고(3:13)

계3:13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구원받았는가? 환난 전 휴거를 받는다, 걱정하지 말라.

2.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라. 열린 문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라.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구원

14 요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재림 전 말세의 배도하는 교회 계3:14-22

올해 계시록 강해, 나도 많이 배운다. 2-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당시의 대표 교회들, 교회 시대 대표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은 < >, 이 교회는 재림 전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보여 준다. 교회가 거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건물이 교회인 교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3:22),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 동남쪽 72km, 에베소 동쪽으로 160km, 브루기아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부유한 상업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안티오쿠스 2세(BC 262-246년)가 자기의 부인인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라오디게아라고 불렀다. 당시 여러 개의 라오디게아가 있었는데 이것은 브루기아와 루디아 사이에 있던 도시이다. 이곳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으나 로마가 BC 190년경에 아시아(Asia) 지방을 만들면서부터 중요한 도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은 고급 검은 양털과 브루기아 산 안약 가루 등으로 유명했다. (*) (*) (*)

지역적인 특성

이곳에는 물이 귀하여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로를 통해 온천물을 끌어들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많은 양의 석회가 오랫동안 물속에 침전돼 비경을 이루고 있다. 석회성분을 품은 물이 지하에서 솟아나 침전이 계속되어 형성된 새하얀 대규모 석회층인 파묵칼레(*)가 유명하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수도관을 통해 흘러온 온천물은 이곳에 도착하면 식어서 덤지도 차지도 않는 물이 되었다. 또한 이 물은 광물질이 섞여 있어 마시기에 부적당함으로 입에서 토하여 내졌다(16절)는 선언과 일치하고 있다.

이름에서 드러나는 특징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와 '정의, 공의'를 의미하는 디케의 합성어로서, '백성의 정의',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의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교회 신자들의 의견과 판단을 따르는 교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적인 교회'라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체제보다 우월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로 인간의 방식대로 운영되면 안 된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세상의 법을 따랐다. 즉 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믿음과 행실의 기준인 성경을 버리고 신자들의 다수결로 대체하였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결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거의 다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데 교회보다 더 나쁜 상태

구약시대 유다, 심각한 배도, 바빌론 포로 생활의 심판

예수님 거부 AD 70년 전 시기로 흩어짐

신약시대, 말세의 극심한 배도, 성도가 아닌 자들이 대다수, 결국 환난기 심판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

골로새와 인접한 도시(17km), (*) 골로새서에 몇 차례 언급된다. 골2:1, 4:13, 4:15-16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제를 하였다.

주 예수님(3:14)

주님은 편지를 보내면서 각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곱 교회에 각각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1. 아멘이신 분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말씀한다. .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멘은 "굳건하다,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계22:20-21 참조

주님이 '아멘인 자'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 대하여 '굳건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고린도후서 1:19-20,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주님에 대하여 '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도 '아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주적이고 '제일 좋은 교회'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아멘이 되신 주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대체하였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멘이다라고 하신다.

2.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주님: 계1:5에서도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라 불리신다.

아멘이신 주님, 즉 굳건하고 확실하며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주님을 안다면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도, 신실함도 찾을 수 없었다. 진실함과 진리가 없기에 진실한 분이라고 하신다.

왜 증인인가? 공생애 기간에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신실하게 증언하심.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게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함(행1:8).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3.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골1:15-16), of의 용례

여호와와 증인들: 창조의 시작, 공동번역 등

골로새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 분명히 골로새서를 읽었을 것이다.

골1:15-17, 창조를 시작하신 그리스도, 창조물의 주인, 왜? 영지주의로 인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영지주의,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를 버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셔서 속죄하심을 부인함

라오디게아 교회(3:15-17)

1.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15-16). 히에라폴리스의 물

신자는 뜨거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주님께서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모든 성경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그들의 말을 보라. 눅24:32

뜨겁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합당한 위치에 있다는 표시이다.

반면에 차갑다는 것은 완악한 불신자들을 말한다. 공개적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다른 부류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보인다.

예배에 온다. 주님을 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선자 마7:21-23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어렵다. 다 안다고 한다.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교회 직분, 세례, 그래서 다가가서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대다수이다. 우리는 어떤가?

주님의 일: 토한다(16). 역겨워서

구원과 성화 두 측면: 1. 구원 안 받고 받은 척 하는 것, 2. 성화, 우리의 행위가 역겹다.

2. 영적 교만(17)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은 17절에서 잘 드러난다. '네가 이르기를'; 자기 자랄, 과대평가, 주님의 평가가 아니다.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성경 신자, 걸맞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나는 부자다. 재산을 불렸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만했다.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 아마도 그들도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며, 그런데 착각함, '물질적으로 부유하니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지금 많은 대규모 교회들의 문제, 조엘 오스틴 세계 최대 교회, 특새 등 북새통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다.

조심해야 한다. '물질적인 부'는 '영적인 부'와 관계가 없다.

말세 교회의 특징: 기복 신앙, 변영 신학, 특새, QT 등 대개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3. 영적 실상, 17절 후반부 주님의 말씀,

'외적인 것'과 '영적인 실상'이 일치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가난하였다. 외적인 부요는 '반드시' 내적인 부요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한다. 여기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은 가련하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가난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였다.

또 주님의 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상태였다. 육신의 몸도 벌거벗게 되면 그 수치를 당하는데 영적인 벌거벗음은 더 심각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은 말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다.

방언, 입신, 신사도, 귀신을 쫓는다 등등, 성경 말씀 자체를 모른다. QT 식 성경 해석 물질적 변영 신학, 영적 변영 신학이 말세 교회들의 특징

그런데 대다수 교회,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록음악, 경배와 찬양, 겉으로는 화려한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주님의 권고(18)

18절, 주님은 17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디게아 교회, 불신자들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말씀한다. 첫째는 불로 정제한 금, 둘째는 흰 옷, 셋째는 안약이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내게서' 즉 주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엡2:7-8, 사64:5-6)).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을 사라고도 하신다(사55:1-3). 이럴 때 산다는 말은 구원받으라는 말이다.

무엇을 주고 사는가? 나의 더러운 죄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사야 한다. 이런 의미이다.

1. 불로 정제한 금을 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정제한 금(gold)'을 살 것을 권하신다. 금은 매우 특별한 광물이다. 수많은 광물 가운데 유독 변하지 않으면서 고귀한 빛을 가진 것이 금이다. 물론 여기의 금은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영적인 금이다.

벧전1:6-7, 불로 단련하여 얻는 고귀한 금을 '너희의 믿음(your faith)'에 비유했다.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얻는 금과 같다.

구원에 관한 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2.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이 흰 옷 역시 영적인 옷이다. 계3:5, 계16:15

네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4.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기의 눈멀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소경을 말한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영적인 진리와 교리를 모른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마15:14) 성경에 눈이 멀었다. 목사가 성경 정체를 모르치지 않는다.

감성팔이 설교, 복받는 설교, 도덕 윤리 설교, 이러니 잘 볼 수가 없다.

주님의 책망과 경고(19)

1. 참으로 중요한 말씀, 19절, 구원받은 자들로 볼 가능성이 있다.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8, 20을 보면 이들이 거의 확실히 불신자들임을 알 수 있다.

19절은 주님의 구원 초청으로 이해하면 좋다.

책망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이다.

책망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책망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 구원받는다. 성화된다.

징계는 “훈련하다, 징계하다, 아이를 훈련하다”라는 의미이다.

왜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가? 편지를 보내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아서

2.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에 대한 좋은 처방은 '회개하고'와 '열심을 내는 것'이다.

불신자: 회개, 열심을 내라는 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갈망해야 한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매일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다. 성경을 읽고 합당하게 살며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이다.

주님의 요청(20)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밖에 서 계신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없다는 말이다. 즉 그 교회 다수의 회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또 구원받았어도 삶 속에서 “주님이 거의 없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뒤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다수가 하는 대로 의사 결정을 하고 믿음 생활 하면 안 된다.

아이언사이드 목사의 예화, 어떤 교회의 문에 Only Jesus,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앞의 3글자가 떨어졌다.

교인들이 보니 “Only Jesus”는 보이지 않고 “Only us”만 보인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 주는 예이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 우리만의 리그가 된다. 구원 없다. 성화 없다. 보상 없다.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만찬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21)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마19:28; 계2:26-27; 롬8:17).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공동 치리자. 주님의 이김과 왕좌에 앉음(빌2:6-11)

결론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혹시 주님이 문 밖에 계시지는 않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 열심

구원받은 사람, 회개 열심

목사나 교회가 먼저가 아니다, 나, 가정이 먼저다.

15 교회의 휴거와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계4:1-4

계1-22장, 구조 1:19(*)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계시록 1-3장 강해, 요한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 이제 남은 것은 '이후에 있을 것들', 계4-22장, 특히 4-20장까지는 무서운 심판,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지상 강림,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천주교, 개신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일들이 AD70년에 일어났다고 가르친다. 네로가 적그리스도 이것은 난센스, 거짓말이다.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것들이다.

오늘 4장, < > ,

성경은 성경으로 본다. 교회 단수로 2-3장에 총 7번, 복수로 1-3장에 총 13번

맨 마지막으로 22:16에 나온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요약: 총 22장 1-3장에만 나오며 3:22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 21장까지 나오지 않음.

마지막(계22:16), 22장 끝에 결론을 쓰면서 1번 나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4-21장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왜 나오지 않을까?

4장 이후에는 땅에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신 상태로 지내다가 휴거 이후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하지만 이들은 교회가 아니다.

환난기 성도들이다. 예수님의 몸, 신부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4-20장은 7년 환난기, 21장은 7년 환난기 이후의 1000년 왕국

계시록 4장은 환난 전 휴거를 보여 준다.

4장 강해

계4:1 이 일 뒤에, 여러 개의 환상 계시, 2-3장의 환상 계시 대언 뒤에, 즉 교회 시대가 끝난 뒤에, 미래 일을 본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은 야곱이 베냐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열렸다(창28:17). 두려워서 이르되, 이곳은 어찌 그리 두려운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서도 요한에게 문이 열렸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의 하늘은 당연히 셋째 하늘이다. 조금 뒤 설명한다.

계시록에서 하늘은 두 번 열린다(4:1; 19:11), 즉 주님이 오실 때만 열린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계1:10), 휴거의 상징(살전4:16-18), (고전15:49-52)

계4:2 내가 영 안에 있었다(in the spirit). 계1:10(in the Spirit)

성령님의 권능 하에 내 영이 있었다.

여기서는 사람이 변화되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요한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올라감(고후12:1-3)을 뜻함.

1절에 음성, 나팔소리, “이리 올라오라.”고 함,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함: 휴거의 모든 요소 요한은 교회의 모형이다.

요한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이다(21:20).

요21:21-24 설명, John(beloved)

요한이 하늘로 채여 올라가는 것은 휴거의 예표이고 이것은 계시록에서 휴거가 생기는 때를 보여 준다. 계시록은 앞의 일을 표적으로(즉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 주었다(1:1).

계4-19장은 환난기에 대한 것이다. 교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

가장 먼저 본 것: 하늘의 왕좌, “내가 통치한다.”, 밧모섬의 유배, 로마 제국 탄압과 핍박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관하고 있다.

계4:3 왕좌에 앉으신 분, 왕좌만 보면 안 된다. 그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앉아 있다. 통치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이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요한은 바울이 보고 쓰는 것이 금지된 것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후12:2-4).

계4:4 왕좌 둘레에 24자리, 24장로: 누구인가? (4:4; 10; 5:5; 11:16, 19:4 등)

1.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5:9-10). 천사는 절대로 장로로 불린 적이 없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땅에서 통치한다(계5:10).

2. 그들은 흰옷을 입고(3:4; 3:18; 19:8), 성도의 표징

3. 왕관을 쓰고 있다(보상의 왕관; 계2:10)

딤후4:8(의의 왕관), 생명의 왕관(계2:10), 썩지 않는 왕관(고전9:25-27), 영광의 왕관(벧전 5:2, 4), 환희의 왕관(살전2:19-20)

3.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왕관을 받는다.

딤후4:8; 벧전5:4

4. 그러면 4장에서 이 24명이 왕관을 쓰기 전에 이미 휴거(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가 일어나야만 한다. 그 뒤 4장 중반 이후부터 7년 환난기

그래서 이들은 교회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환난기 이후에 부활하기 때문이다(단12:1-2, 13; 사26:19-21, 27:1). 시110편(특히 3절)

부활 설명(*)

5. 휴거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본다.

6. 왜 24인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24개의 계열로 나뉘었다(대상24:1-19).

우리 즉 신약 성도들은 왕가의 제사장(벧전2:9; 계:1:6).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실제 장소(*)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의 현현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heaven, 하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첫째 하늘 — 새들과 구름이 거하는 곳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마6:26)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닙니다.

(2) 둘째 하늘 —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창22:17).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답다 해도 첫째 하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아닙니다.

(3) 셋째 하늘 —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후12:2)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의 셋째 하늘입니다. 수천 년의 노력 끝에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

서 둘째 하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주 공학이 발달해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다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행은 '뇌'(brain)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오직 '피'(blood)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6:9에서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바로 이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셔서 바로 이 하늘로 가셨으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죽는 순간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갑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셋째 하늘의 위치

욥26:7, 북쪽(the north)을 빈 곳에 펼치신다.

욥26:9-10

여기는 낮과 밤이 끝이 나는 곳이다.

물들이 있다. 시148:3-4, 4절 설명

욥37:18,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sky= molten looking glass(얼어붙은 유리 혹은 수정,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계4:6 firmament(창1:6-7), 딱딱한 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밀도를 가진 곳

이런 하늘은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앞의 하늘

사57:15, 영원, 높고 거룩한 곳,

루시퍼의 반역: 사14:12-14, sides of the north

시48:1-2 북쪽의 옆면들, sides of the north

시75:6-7, 동서남북

그분의 처소, 북쪽으로 빈 곳을 지나서 궁창을 지나서 물들(수정 같은 유리 바다)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왕좌가 있는 방

결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 일을 요한이 예표로 보여 준다.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간다. 그리고 최후에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산다.

딤후2:11-13

16 기록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성도들의 찬양

계4:5-11

계1-22장, 구조 1:19(*)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2-3장 교회 시대
지난주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1-4절, 성도들의 모형인 요한이 영 안에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 휴거의 예표,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24명의 장로들과 그들의 자리, 그들은 금왕관을 쓰고 있음
신약 시대 휴거받는 자들을 대표함
성경의 부활, 성경의 세 하늘

오늘 4장 5-11, < >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

4장 5절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번개, 천둥, 무엇이 상상되는가? 두려움 공포, 출19:16,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떨더라.
이대로 접근하면 죽는다.

이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곧 7년 환난기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의 전조로 번개, 천둥, 우렁찬 소리

계8:5, 11:18-19, 16:18

일곱 등불은 일곱 영, 물론 완전하신 성령님 표현(1:4), 역시 무언가를 깊이 살피는 것 표현, 강렬한
빛을 내신다. 역시 심판의 상황 표현함

4장 6-7절

1. 6절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상징의 바다가 아니라 진짜 바다이다.

구약 시대: 성전에는 놋 바다가 제단 다음에 있었다(왕상7:23-45). (*)

성막에는 물두멍이 제단 다음에 있었다. (*)

이것들은 하늘의 것들의 예표(히9:9),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셋째 하늘, 궁창 위의 하늘, 궁창 위의 물들, 엄청난 밀도, 수정 같은 바다(겔1:22, 26)

겔1:22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음(수정 같은 유리(새파이어) 바다)

2. 6절 네 짐승, 실제 짐승, 여섯 날개, 4짐승은 4복음 등 비유 해석 거짓이다. 진짜 짐승이다.

1. 그룹(겔1:10), 그룹은 천상의 존재 중 하나, 천사가 아니다.

에스겔의 네 짐승은 네 날개(1:6), 바퀴가 달림, 왕좌를 물고 다님(겔1:26-27) (*)

겔10:15, 그룹들이 들렸는데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살아 있는 창조물이니라.

하늘의 짐승들은 그룹이다. 아담과 이브의 축출, 그룹들을 에덴의 동쪽에 두심(창3:24)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가오지 못하게 하심, 그래서 성막에도 지성소에 그룹들이 놓이고 위장에 그룹들이 수놓아짐

출37: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의 다른 끝에 만드니라. 그가 궁궐의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의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었더라. (*)

출36:35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휘장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었더라. (*)

겔1:18: 사방으로 눈이 가득함(계4:6), 모든 것을 살핀다. 역시 심판의 표징

원래 그룹은 4이 아니라 5, 한 그룹이 타락함, 덮은 그룹, 사탄(겔28:14-15)

4:7 네 얼굴

2. 스랍(사6:2-3), 여섯 날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 그룹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는 정지 상태 6날개, 에스겔 바퀴를 가지고 움직임(왕좌를 나르며), 4날개

원래 그룹 네 얼굴(겔1:6), 얼굴마다 2눈, 사방에 눈

(*) 그룹들의 얼굴(10:14),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10,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그룹은 소이다(*). 황소 및 염소 승배, 루시퍼 승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8)

1. 거룩하신 분

짐승들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사6:3), 세번 강조, 삼위일체 하나님 9절 영원 무궁히 하나님 찬양, 예배,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의 의미, 완전히 구분되신 분(시86:8-10)

거룩함은 그분의 모든 것의 요약

악, 죄, 더러움, 실수 무지 등 없으신 분

전지전능, 무소부재, 인간과 우주 경영, 신실함, 은혜, 사랑, 진노, 오래 참음, 위엄, 권위
그분은 거룩하다(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며 찬양 속에서 두렵고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출15:11). 시47:8,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도다. 거룩함의 왕좌에 앉으신다.

벧전1:14-16, 하나님이 거룩하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령, 거룩한 영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진노에 대한 것이다. 이제 7년 환난기 진노, 심판이 시작된다.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심판, 거룩한 심판

벧세메스 사람들 궤를 들여다봄(삼상6:19-20), 50,070명이 즉사함

웃사와 아히오 역시 궤를 만짐 즉사함(삼하6:7)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계6:16-17)

이사야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사6:5).

2. 전능하신 분

짐승들은 그분을 전능자(Almighty)라고 부른다(계4:8, 창17:1). 가장 강한 존재, 무엇이든지 하신다(사40:28, 시115:3; 사46:10; 마19:26)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 얼마나 위력적인가?(시33:9), 그분께서 말씀하시매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다윗의 말(대상29:11-12)

여기서도 하나님의 파워는 7년 환난기와 상관에 있다(나1:6).

3. 영원하신 분(4:8)

네 짐승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선포한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

그래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생명 소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한 새영 소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영원히 지옥 불속에서 고생한다(계:14:11).

24장로의 하나님 찬양(9-11)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니까 24장로들이 주님께 경배함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1.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2.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3. 던지며

예배의 3요소: 엎드림, 경배함, 드림

왕관을 던짐(금왕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고는 11절,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합당하다 worthy, worship

당신은 창조자,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

창조물은 반드시 창조자에게 예배해야 함, 사1:3,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탄 마귀, 마귀들, 창6의 하나님의 아들들, 불신자들,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반역하고 있다.

믿음에 의심이 가면 능 하나님을 특별 창조를 생각하라.

결론

창조물이 영원무궁토록 해야 할 일, 창조자 하나님 찬양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된다.

항상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17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봉인 책

계5:1-7

계1-22장, 구조 1:19(*)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2-3장 교회 시대
지지난주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1-4절, 하늘 문이 열리고(1 *) 성도들의 모형인 요한이 영 안에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
휴거의 예표,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24명의 장로들과 그들의 자리, 그들은 금왕관을 쓰고 있음(*)
금왕관을 벗어서 던짐(*)

신약 시대 휴거받는 자들을 대표함

지난주, 왕좌 앞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4 짐승

이 짐승들은 아마도 그룹, 그룹은 소, 이집트, 인도 사람들 소 승배

짐승들과 장로들 하나님 찬양: 창조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

오늘 < >, 5장 요약: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최종 사역,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1-8)

계5:1-8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 어떤 책인지 알려지지 않음.

지금과 같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의 책

어떤 책인가? 1. 계시록, 6-7장 일곱 봉인을 뿜

2. 성경 책, 3. 다니엘서(단12:4)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 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구속의 의미(Redemm)

지난주 하나님 설명, 창조자, 오늘 구속, 구속자 어린양 개념 설명(*), 대단히 중요하다.

24장로들의 구속 감사 찬양(9절)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대신하는 것

- 구속(Redemption) 구속이란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말에서는 '무르다'(물건) 혹은 '속량하다'(사람)로도 표현되었다. 그런데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기록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엡 1:13-14)

여기에 나오는 소유물 즉 구속받아야 할 소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록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은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롬8:22-24)

즉 예수님이 구속해야 할 소유물은 바울이 롬8:22-24에서 말하는 양자 삼으심의 대상인 우리 몸이다. 아담은 죄를 범했을 때 몸의 영원성과 땅의 상속권을 상실했으며 그 뒤 아담의 씨가 받아야 할 모든 상속물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았다(눅4:6). 아담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은 소유주의 가까운 친족이 소유주가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레25:24-25, 47-48)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친족으로 예비하셨다. 친족이 되기

위해 먼저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처녀 탄생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 그냥 무를 수는 없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벧전 1:18-20).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영과 혼은 구속되지만 그의 몸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완전히 구속된다(빌3:20-21). 또한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천년 왕국 때에 구속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

● 구속자(Redeemer)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호칭.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짓값을 다 치르사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마20:28; 갈3:13; 엡1:7; 딤후2:6; 딤후2:14; 벧전1:18-19; 계5:9).

1. 이 같은 예로 룻4:1-12의 보아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 엘리멜렉의 유산 상속자인 룻과 결혼하여 그녀의 소유 안으로 들어갔다.
2. 렘32:6-12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사촌인 하나멜의 밭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리려고 하던 밭을 친족 구속자 자격으로 구매했다.
3. 소유권을 찾으려면 장로들(10명) 앞에서 성문에서 그 일을 해야 했다(룻4:1-12).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Goel)이라 했고 그것을 번역하면 구속자 즉 무르는 사람이다. 여기의 일곱 봉인된 책은 그런 소유권(집의 등기 서류)을 뜻한다(땅에 대한 소유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 대한 소유권).
4.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욥19:25-26).
5. 요약: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몸과 땅을 구속할 능력이 없으나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레 25:23-34). 그 친족이 바로 둘째(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이다. 성육신, 자신의 피로 구속 금액을 지불하심(벧전1:18-20).

계5:2 천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음. 강력한 천사는 누군지 알 수 없다(힘센, 강력한 10:1; 18:21).

계5:3 천상의 존재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봉인들을 뿔 수 없다. 우주 공간의 표현

하늘: 천사의 존재들, 성도들(천주교 성인 천사 마리아 No!), 땅(목사, 신부, 성인, 학자, 교황, 주교), 땅 아래(4구원받지 못한 자들, 마귀들), 온 우주 공간

왜? 합당하지 않으므로

연다는 말 Open, 단순히 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는 것

눅24:45

행16:14

계5:4 요한이 크게 운다. 우는 이유 마지막 설명

계5:5 24장로들 중 하나, 유다 지파의 사자(히7:14), 사자: 왕의 통치(창49:8-10)

불가능한 것이 없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사11:1, 10, 마1:1), 그분이 이기시고 일곱 봉인을 열 수 있다.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갈보리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계5:6 그런데 그 사자가 '죽임당한 어린양'(요1:29)으로 나타난다. (*)

어린양은 짐승이 아니다(7절 He 참조).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드디어 예수님이 구속자로 증언 받을 때가 되었다(딤후2:5-6).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양, 즉 희생물로 피를 흘리신 분

어린양 일곱 뿔(권위) 일곱 눈(모든 것을 살핌), 일곱 완전함을 뜻함

계5:7절 그 두루마리 책은 땅의 소유권, 집 등기 문서

이런 것은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겔2:9-10).

그분이 그 책을 아버지로부터 취하심(단7:13-14)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인류 역사 6,000년, 그 전 영원의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특별한 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 땅을 내 힘으로 통치해야겠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이 지구 통치

첫 번째 등장인물 사탄 마귀, 하늘에서 반역 천사들 3분의 1, 실패

그리고 이 세상의 신으로 타락하였다(고후4:4).

그 뒤에 그는 아담의 타락,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롬 황제들, 칭기즈 칸,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 푸틴, 시진핑 등 모두 실패

그리고 결국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등장, 그런 인류와 지구 장악 실패
땅에 대한 권리는 우리 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다. 초리 때 메시아로 오심, 거부됨

이제 자신의 소유를 영원히 찾기 위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분을 무시하고 대적하던 모든 자들, 사탄 마귀, 마귀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 심판 처단
계시록 5장은 바로 그 일을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

천년왕국의 통치자, 철장 권세

4,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르익어 곧 땅에 진노가 퍼부어질 것을 미리 보여 줌

그 심판의 내용이 6-19장

그러므로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문맥을 이해하면 어느 면에서 가장 쉬운 책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 책(계1:3).

모든 것을 기록하신 뒤 초청(계22:16, 17, 20).

요한이 운는 이유와 주님의 위로(5:4)

계5:4 요한이 울. 구속의 책을 열 수 없으므로, 소유물을 되찾을 수 없으므로

크리스웰의 주석: 요한이 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운 것이다.

아담과 이브, 아벨, 그 이후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모든 창조물들 신음하며
기다린다. 구속자를 못 찾으면 이 땅은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인다.

요한의 울음: 메시아 거부, 처형, 유대인 쫓겨남, 교회 시대의 탄압과 핍박당하고 예측함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으니 답답해서 운다.

복음서, 죽음 앞에서 운는 자들, 나인성 과부 아들(눅7:12-13), 회당의 치리자 딸(눅8:52)

우리는 울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는 능력이 풍성한 분이시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운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 권세를 누르신 분

바로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요한의 눈물을 닦아 주신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 바란다.

1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구속의 은혜

계5:8-14

계1-22장, 세 부분(*)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7년 환난기,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1-4절, 하늘 문이 열리고(1) 성도들의 모형인 요한이 영 안에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감
휴거받는 신약 성도들의 예표,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24명의 장로들과 그들의 자리(*), 그들은 금 왕관을 쓰고 있다가 금 왕관을
벗어서 던짐

그룹으로 보이는 4짐승과 24장로들 하나님 찬양: 창조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9-11)

지난주 5:1-7, 일곱 봉인으로 봉인된 책(*), 이 책은 땅의 소유권 증서, 우주 공간에 이 책을 펴서
읽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 6절 왕좌 옆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땅을 구속하실
때가 되었다. 구속하려면 땅에 있는 불신자들 심판이 있어야 한다. 6장 이후 7년 환난기 심판
즉 5장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최종 사역인 땅의 구속 개시

오늘 < >,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시니(8) 4짐승과 24장로들 어린양 그리스도 찬양: 구속하신
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땅을 구속하시는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어린양이 나오셔서 책을 취하시매 하늘에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짐(8)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클라이맥스

계5:8 8-10절은 구속의 노래이다.

네 짐승과 24 장로: 천상의 존재들 대표, 구원받은 자들 대표

4장의 예배와 5장의 예배의 차이: 4장 창조자 찬양(아버지 하나님), 5장: 구속자 찬양(어린양 그리스도)
찬양이 쏟아지는 이유: 이제 드디어 죄를 심판하고 의를 집행할 때가 되었다.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 그 뒤 1000년 왕국, 창조물의 해방
이들의 경배 모습: 엎드린다(8), 4:10 24장로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과 같다.

즉 어린양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완성 후 승천,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취하심,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7:5).

승천 뒤에 일어난 일(엡1:20-22)

24장로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 향은 성도들의 기도(8)

구약을 보면 하프는 예배 때 늘 사용하는 악기(시33:2; 71:22, 92:1-4 등)

그런데 대언할 때도 하프가 사용되었다(삼상10:5; 왕하3:15)

그러므로 이들이 하프를 든 것은 성경의 대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의미한다.

메시아 왕국, 주의 날, 천년왕국

금병은 성전과 성막에서 쓰이던 기구, 집중해서 부을 때 쓰는 병(금 향로)

제사장들의 증보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

즉 모든 대언과 성도들의 기도가 곧 성취될 것이다.

계5: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성경 전체를 보면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이다(시33:3; 40:3; 96:1; 98:1; 144:9; 149:1; 사42:10;

계5:9; 14:3). 총 9회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9절 상반절). 왕의 왕, 주의 주, 유다 지파의
사자

봉인들을 연다는 의미: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 안의 심판들을 집행하신다.

그분이 합당하신 이유: 주님께서 죽음과 피로 우리를 구속함(벧전1:18-19)

구속받은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인종, 피부색

요한의 염려: 2-3장, 교회의 핍박, 순교

그런데 휴거가 되어 나중 세상을 보니 자기의 염려와는 정반대로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넘쳐남

구속의 도구: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구속하셨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가장 중요한 것 피, 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피를 흘려야 한다.

히9:22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마제스티 133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님 피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의 찬양 제목은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 밖에 없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피의 중요성(레17:11,14)

1. 죄가 없는 피; 가롯 유다의 고백(마27:4; 히4:14-15; 고후5:21). 하나님의 피(행20:28).
2. 깨끗하게 하는 피(요일1:7)
3. 보배롭고 귀중한 피(벧전1:18-19), 유일한 피
4. 썩지 않는 피(시16:10; 행2:27)
5. 필수불가결한 피(히9:22),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구원, 칭의, 화평, 천국이 없다.

계5:10 다른 성령들은 우리를 그들로 바꾸어 버림(계1:6). 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천년왕국 시절에 왕과 제사장으로 땅을 다스린다(계20:6).

계5:11 천사들의 수, 셀 수 없음(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히12:22, 단7:10)

계5:12 천사들의 메시아 찬양,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죽음 찬양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속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구속 노래의 주제

계5:13 모든 창조물 하나님과 어린양 찬양(시150:6)

창조 세상이 모두 주님 찬양(롬8:19-22)

심지어 짐승들도 찬양 발람의 나귀를 보라(민22)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 가능하다.

계5:14 네 짐승의 아멘, 장로들의 경배

이제 드디어 땅을 구속할 시간이 되었다.

이 구속의 주인공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일을 위해 6장부터 그분이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된 책에서 봉인들을 떼기 시작하신다.

온 땅에 심판이 부어진다.

환난 전 휴거의 중요성

7년 환난기는 준 지옥, 그때 피하러 하지 말고 지금 피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면 된다. 살전4:16-17

19 일곱 봉인 심판 시작: 7년 환난기와 다니엘의 700이레

계6:1-17

계1-22장, 세 부분(*), 과거 현재, 미래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은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7년 환난기,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4:1 이 일 뒤에, 즉 교회 시대 뒤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신약 시대 교회 모형, 영 안에서 휴거받아 하늘로 올라간다.(*)

왕좌, 거기에 앉으신 분, 네 짐승, 24장로(신약시대 교회)(*)

이들이 창조자 하나님 찬양,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 전능자, 영원하신 분 찬양 5장, 일곱 봉인 책(*), 우주 공간에 이 책의 봉인들을 뭇 존재가 없다. 요한이 운다,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양께서 이 책을 취하신다.(*)

이 책은 땅의 소유권,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마귀에게 넘겨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기시고 소유권을 구속할 때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몸, 땅과 그 안의 모든 창조물

네 짐승, 24장로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분 우리의 예상: 이제부터 구속자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하셨으므로 사악한 자들을 땅에서 제거하는 심판을 행하고 땅의 의를 가져와야 함, 바로 그 일이 6장부터 20장까지 진행된다.

오늘 < >, 소유권을 받자마자 친족 구속자이신 그분께서는 봉인들을 떼심으로써 마귀에게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취하기 시작하신다(6장부터).

오늘 교육 설교

계시록의 7년 환난기 구조

6장부터 시작되는 7년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릇된 이해: 환난 통과

올바른 이해의 핵심: 계시록은 유대교의 요소가 많다는 것 발견하는 것(404절 중 278절). 3분의 2 예: 간단하게 특히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1. 일곱 교회

2. 일곱 봉인

3. 일곱 나팔

4. 일곱 금병

5. 일곱 인물: 해(sun)를 입은 여인, 용, 사내아이, 천사장,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6. 일곱 심판: 종교적 바빌론, 상업적 바빌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반기독교적인 민족들, 곡과 마곡, 사탄, 이미 죽은 사악한 자들

7. 일곱 개의 새 것: 새 하늘, 새 땅, 새 도시, 새 민족들, 새 강, 새 나무, 새 왕좌
영감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시록 전체에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일곱 날의 창조, 일곱째 날 안식(창조 사역 완성)

창4:24, 라멕의 저주

레23장, 일곱 명절(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마18:21-22

일곱은 완전, 완벽을 가리키는 수, 계시록은 이 수로 가득 차 있다.

이 수 일곱은 진짜 일곱일 때도 있고 상징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 외에도 계시록에는 성전, 봉인된 두루마리 책, 봉인, 나팔, 금병, 왕좌, 왕과 제사장, 주의 날(1:10) 등 거의 다 유대교 요소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6-7장, 일곱 봉인

8-9장, 일곱 나팔

15-16장: 일곱 금병

순서대로 7년간에 걸쳐 봉인, 나팔, 금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나 착각을 한다.

봉인 1 2 3 4 5 6 7 → 나팔 1 2 3 4 5 6 7 → 병(대접) 1 2 3 4 5 6 7 (*)

심지어 미국의 대다수 근본주의 신학교들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우리는 성경 신자.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

계시록은 유대교 요소, 히브리 묵시 문학의 형태(*)

봉인	1	2	3	4	5	6	6-7장
나팔(7번째 봉인)			1	2	3	4	8-9장
병(대접)					1	2	15-16장

여섯째 봉인을 떼면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계6:12-13), 환난기 끝

환난기 바로 이후에 비교: 마24:29, 사2:10-12: 주의 날, 율2:30-31

일곱째 나팔(계11:15-19, 비교 10:7)

18절: 시편 2편, 계19:11-21

18절: 보상(마25:31-46)

계10:11, 매우 중요함

두 증인들의 사역의 끝(11:14), 1260일 동안 사역함, 환난기 중간에 사역을 시작함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곱째 나팔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환난기 중반부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 소리는 7년의 끝에 울린다.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즉 계시록에서는 7년 동안의 일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기의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6장 적그리스도, 7장 144,000명, 다시 13장 적그리스도, 14장 144,000명,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유연한 자세로 그대로 순서를 따라 가면 된다.

7년 환난기

휴거(살전4:16-18; 고전15:51-53)

환난 전, 환난 후 휴거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성도는 환난기를 통과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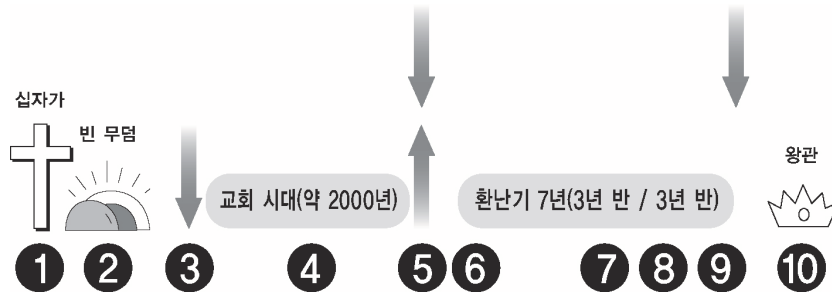
특히 다니엘의 70이레 예언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

I. 환난기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다.

B.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긴다(마24:29-30).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벰전3:18), 2. 부활(고전15:4; 롬1:4), 승천 행1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행15:14). 이미 2,000년이 지나갔음
 5. 휴거와 부활(살전4:13-18)
 6. 환난기 시작: 적그리스도와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됨(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땅에 오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 C. 환난기: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4-9장
- D. 환난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1. 가령 계시록 6장,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이 언제 일어났는가?
2.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는가(계13:1-12)?
3.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는가(계13:14-15)?
4.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던 때가 있었는가(계13:16-17)?

II. 특별한 고통의 때

-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림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마23:37-39).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순순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환난 즉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운다.
- B. 이스라엘의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 9,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25장, 로마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등이 잘 설명해 준다.
- C.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환난 즉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다(마24:21).
- D. 예레미야서 30-31장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 잘 기록한다(렘30:6-9).
- E. 바로 이런 기간이 환난기이다. 환난기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꺾테기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려는 것이다. '야곱의 고난의 날'
- F. 스가랴서 12-14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한다(슌13:8-9).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민족에게 없던 일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명,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 G. 환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연이어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 H. 예수님의 왕국 제안, 유대인들의 거절, 왕국의 연기, 재림 때에 왕국 시행, 그 전에 환난기 필요
- I. 이때에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펴부어진다.

III. 환난기간: 70째 이레

- A.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의 70이레
- B.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 24절, 70이레는 490일이다. 483일 + 7일=총 490일, 여기의 하루를 실제 하루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1.36년 No! 하루를 일 년으로 보아야 한다(민14:34; 겔4:6). 거의 모든 주석가들과 목사들이 이에 동의한다.
- C.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40년경, 그때 이후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이레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 D.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30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483년(태양력으로는 476년), 그리스도까지 483년,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년
- E. 27절은 ‘한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7년)을 의미한다.
- F.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G.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 환난기는 후반기 3년 반이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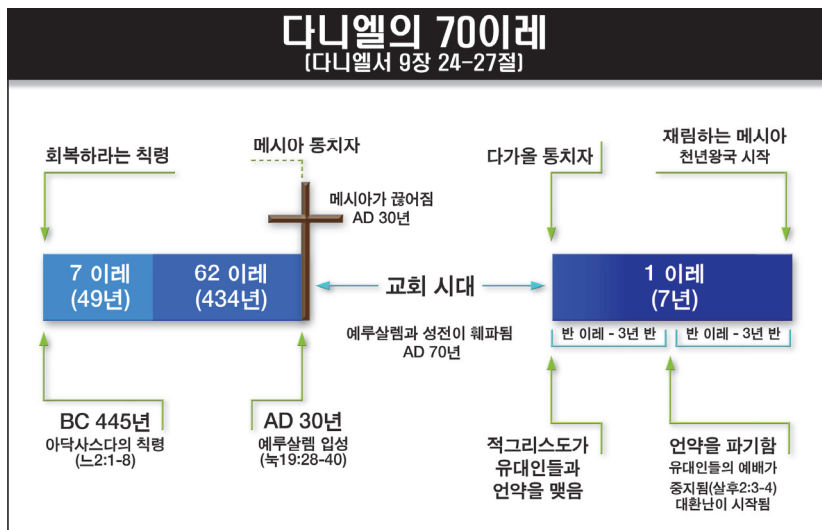
1.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 (단12:4),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반 이레(단9:27)

2. 1,260일(계12:6, 11:3), 3. 마흔 두 달(계11:2; 13:5), 4.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H.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이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떼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다.

요약 결론

우리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
벤후3장의 충고



20 일곱 봉인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기

계6:1-17

계시록은 읽고 지키면 복을 받는 책이다(1:3). 많은 교회, 목사들 계시록 강해 터부시, 성도들 무지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강해할 사람은 없다.

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편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주셨다.

그러므로 주어진 배경과 문맥을 보면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 성경의 계시는 16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주어짐

성경의 해석 중 재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류 경영에 대한 이해와 해석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1948년 이전까지, 사실 계시록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 거의 불가능

예를 들어 1. 두 대언자의 죽음, 온 땅 사람들이 기뻐함(계11:10), 2. 계13장의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13:16-17),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 없이 불가능

그러나 지난 74년 동안 큰 변화

1. 이스라엘의 귀환: 1948년 5월, 가장 큰 증거(올리브 산에 오신다, 행1:11)
2. 세상의 지식 급격히 발달(단12:4),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3. 그 결과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제 정치 가능함
4. 드디어 계시록의 해석 역시 절정에 다다름
5. 어거스틴, 칼빈, 루터,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 이들의 후예들, 계시록 해석에 관한 한 무지한 자들, 네로가 적그리스도 주장, 존 맥아더처럼 정직해야 한다(환난 전 휴거, 천년왕국).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글의 형식과 문맥에 따라 문자 그대로

지난주, 계6-19장 전체 구조, 계시록은 3분의 2가 구약 성경과 연관됨, 히브리 묵시 문학 이런 차원에서 7봉인, 나팔, 금병 심판을 이해해야 한다(*) (*).

맥아더 주석을 보니 역시 그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오늘 < >, 일곱 봉인 심판, 내용, 전반적인 개요, 성경이 심히 논리적임을 보고 믿으라.

복습, 4장, 하늘로 채여 올라감, 왕좌와 왕좌에 앉으신 분, 4짐승과 24장로의 찬양(*)

5장, 일곱 봉인으로 봉인 된 두루마리 책(*)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하심(*), 땅의 소유권

드디어 6장부터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고 땅에 의를 세우시면서 천년왕국 설립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으면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다.

여기의 7년, 왜 7년인가? 다니엘서 9장의 70이레 예언, 마지막 한 이레의 7년(*), 다니엘서와 같이 보아야 한다. 특히 단12:1, 이것 다음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재난들이 닥치는데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다.

6장 전체 구조 및 강해

계6:1 어린양께서 드디어 봉인을 떼기 시작함, 천둥소리 같은 음성, 네 짐승 중 하나(계4:7)

첫째 짐승, 사자

‘와서 보라’(come and see)의 보라가 다른 역본에는 삭제됨(3, 5, 7절도),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니’(I saw)가 나온다.

계6:2 흰 말 탄 자(*), 성경 주석가들이 크게 논쟁을 벌이는 인물,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다니엘의 70이레 중 마지막 이레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다(천주교,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리스도로 가르침)

박윤선 박사 등 장로교 주석서, 거의 다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해야 환난 통과 교리 가능해짐 봉인을 떼는 장본인이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흰말을 탄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1. 그는 이미 왕이다. 2. 정복하고 정복하면서 왕국을 확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 등이

가르쳐 온 후천년주의 혹은 무천년주의의 핵심

3. 앞으로 일이 점점 더 잘될 것이다(진화론, 인본주의).
4. 우리 힘으로 왕국을 확장해야 한다.
5. 교회가 그리스의 왕국으로서 세력을 확산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 칼빈 등 개혁자들의 주장
6. 이를 위해 WCC 종교통합, UN 등

성경의 판결: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 예수님의 말씀, 노아와 때와 롯의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오래 참고 참다가 결국 심판하신다.

7년 환난기, 세상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심판과 재난,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극도의 타락

왜 해석들이 다양한가? 주석가들이 혼동하는가? 흰 말을 탄 존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계19:11, 13, 16, 이분은 적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존재이다.

이분이 온 이후에 땅에는 1000년 왕국

적그리스도가 나온 이후로 전쟁, 기근, 사망, 믿는 자들의 순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닥친다.

6:2의 적그리스도, 19:11의 그리스도 차이

1. 19:11의 흰말은 하늘에서 나온다. 6:2는 출처를 모름
2. 19:11의 흰말 탄 자는 많은 왕관. 6:2의 흰말 탄 자는 한 왕관
3. 19:11의 흰말 탄 자는 에리한 겹(19:15), 6:2의 흰말 탄 자는 활
4. 19:11의 흰말 탄 자의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따라옴, 6:2의 흰말 탄 자의 뒤에는 사망, 지옥, 기근이 따라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런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일을 한다. 능력도 있다. 모바의 명수, 사람들을 속인다.

1. 예수님의 신부, 도시, 새 예루살렘(계21), 사탄의 신부, 도시, 바빌론(17)
2.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사탄은 빛의 천사(고후11:14)
3. 유다 지파의 사자(계5:5), 울부짖는 사자(벧전5:8)
4. 평화의 통치자(사9:6), 이 세상의 통치자(요14:30)
5. 왕들의 왕(계19:16), 사탄,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욥41:34)
6.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요20:28), 이 세상의 신(고후4:4)
6. 둘 다 성경 인용(눅4:), 기록된 바(마귀, 눅4:10)

즉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방하는 자이다.

계6:3-4 둘째 봉인, 둘째 짐승은 소(계4:7)(*) 전쟁, 붉은 색(피), 칼(전쟁), 마24:6-7, 살전5:3 그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함(*)

그래서 2절의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세상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계6:5-6 셋째 봉인, 셋째 짐승은 사람(계4:7)(*), 저울, 음식을 다는 기구, 기근, 배급제 시행 일 데나리온(하루치 품삯)에 밀 한 되(노예에게 배급되는 최소한의 양)

보리 석 되, 3인 가족

이것은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 착취, 극도의 빈부 격차, 양극화

기름과 포도즙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 배급, 하나님의 공휼

이것은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 착취, 극도의 빈부 격차, 양극화

계6:7-8 넷째 봉인, 셋째 짐승은 독수리(계4:7)(*), 사망과 지옥, 사망과 지옥이 대문자로 의인화 되어 있다. 즉 의인화된 존재, 파멸(죽이는 일)을 전담하는 천사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집트의 파멸시키는 천사처럼

9장의 다섯째 천사의 나팔(9:1),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옴(9:3). 10절 사람들을 해침, 무저갱의 천사(9:11)

이 둘이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림, 다시 말해 인류의 4분의 1정도가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의 재앙은 겔14:21의 재앙과 비슷하다. 이것은 아직 고통의 시작이다(마24:6-8).
지옥도 의인화 되어 있다. 계9:1-13, 무저갱에 있던 존재들이 땅 위로 올라온다(반인반수).
말 그대로 준 지옥 상태

계6:9-11 다섯째 봉인(*), 제단 아래 있는 죽임 당한 자들의 혼(*), 아마도 후반부 3년 반 기간에
순교당해 제물이 된 사람들

혼들이 말을 하고 옷을 입음(눅16장의 부자와 나사로), soulish body를 가지고 있다.

원래의 soul(창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안식교 등의 soul sleep 주장은 근거가 없다. 몸이 잠잔다. 혼은 깨어 있고,

이 사람들: 계20:4을 보면 참수형을 당한다. 이슬람 세력의 확장

로마 시대 바울의 증언(롬16:4), 참수형, 아마 바울도 참수형

여기의 제단, 아마도 실제적인 제단, 살후2:3-8, 마24:15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된다(마3:1-2; 마24:9-14). 그 뒤에 끝이 온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특히 유대인들)

계6:12-13 여섯째 봉인(*) 천체들의 변화(마24:29; 행2:17-21; 율2:30-31; 사13:9-10; 사
34:4), 숙14:1-14 참조

계6:14-17 주의 날의 심판(사2:21; 눅23:29, 30) 요엘서 2장

이로써 7년이 다 지나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요19장) (*)

계시록에서는 적어도 네 번 환난기를 보여 준다.

일곱 봉인(6장)

일곱 나팔(8-11장), 11장 15절에서 끝남

여자와 적그리스도(12-14장), 14장 20절에서 끝남

일곱 금병(대접, 15-19장)

요약 결론

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고 지키면 복이 있다.

우리는 결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았는가?

벧후3:9-12의 충고